

<표 5-42> 장애로 인한 어려움 관련 도움신청, 도움제공, 환경제공 평가 (N=400)

	도움신청경로 ¹				충분한 도움 제공 ²		충분한 환경 제공 ³	
	전혀 모름	들었으나 잘 모름	대략적 알고있음	구체적 알고있음	평균 점수	t/F	평균 점수	t/F
응답자 전체	36.0	37.5	23.3	3.3	5.2	--	5.3	--
가구규모	1인 가구	43.9	37.8	17.1	1.2	5.0	5.1	1.02
	2인 가구	31.7	37.5	27.5	3.3	5.4		
	3인 이상	35.4	37.4	23.2	4.0	5.2		
거주형태	아파트	35.4	37.2	24.2	3.1	5.2	5.3	0.13
	단독/다세대 등	36.7	37.9	22.0	3.4	5.3		
주택유형	자가	35.7	38.0	22.2	4.1	5.3	5.2	0.56
	전월세/기타	36.3	36.9	24.6	2.2	5.2		
노인 가구원	있음	42.6	36.4	16.7	4.3	5.1	5.1	3.21
	없음	31.5	38.2	27.7	2.5	5.3		
장애인	있음	16.7	45.2	23.8	14.3	5.0	5.1	0.77
	없음	38.3	36.6	23.2	2.0	5.3		
아동	있음	34.3	34.3	28.7	2.8	5.3	5.3	0.11
	없음	36.6	38.7	21.2	3.4	5.2		
맞벌이	맞벌이	33.3	39.7	25.6	1.3	5.4	5.5	1.73
	외벌이/기타	36.6	37.0	22.7	3.7	5.2		
경제상황	어려움	37.1	39.3	22.1	1.4	5.0	5.1	2.77
	보통	37.8	37.8	20.6	3.8	5.3		
	여유로움	25.5	31.4	37.3	5.9	5.7		
사회경제 지위	상	33.3	22.2	37.0	7.4	6.4	6.3	8.54***
	중	33.2	39.1	24.4	3.3	5.3		
	하	44.1	37.3	16.7	2.0	4.8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33.0	46.0	18.0	3.0	5.1	5.1	0.75
	25%~75%	36.3	36.8	24.9	2.0	5.3		
	75%초과	38.4	30.3	25.3	6.1	5.3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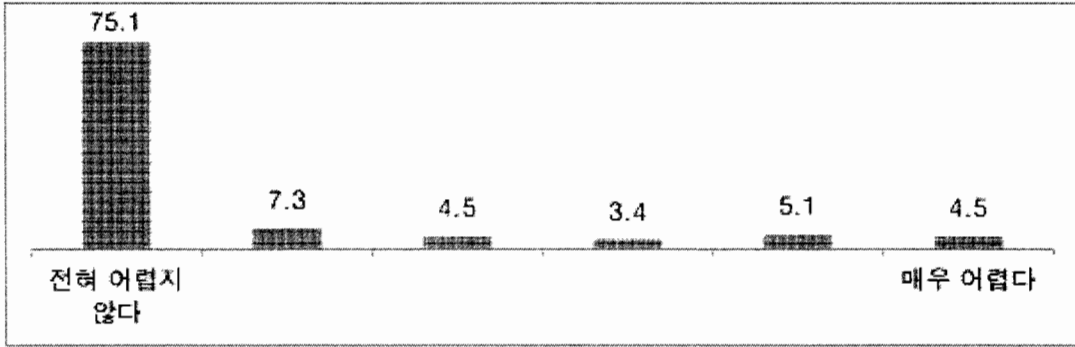
- 주 1.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시, 어떻게 어떠한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경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에 대한 각 응답범주의 백분율
- 2 '우리 지역은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별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10점으로 척도가 구성됨.
3. '우리 지역은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교통편의나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형태의 10점 척도로 구성됨

<표 5-43>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N=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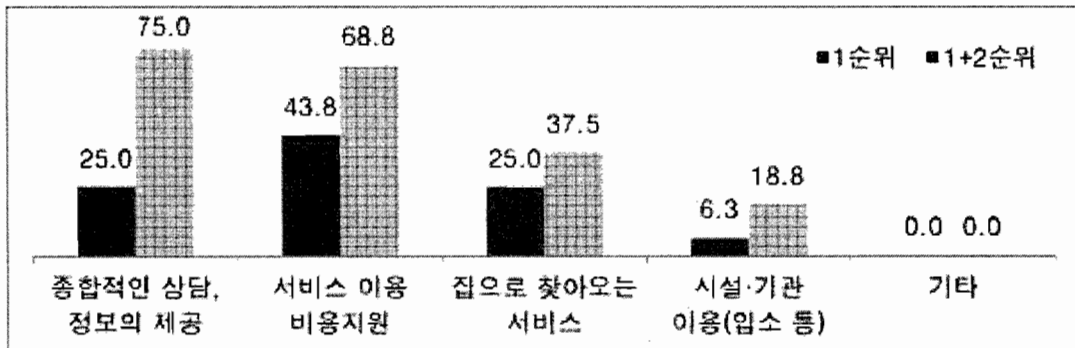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 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82.5	7.9	9.6	1.7	9.0	25.0	43.8	25.0	6.3	0.0	
가구규모	1인 가구	86.8	9.4	3.8	1.5	9.4	0.0	80.0	20.0	0.0	0.0
	2인 가구	78.6	8.6	12.9	1.8	11.4	37.5	37.5	25.0	0.0	0.0
	3인 이상	83.3	5.6	11.1	1.7	5.6	33.3	0.0	33.3	33.3	0.0
거주형태	아파트	80.8	9.0	10.3	1.8	7.7	16.7	33.3	33.3	16.7	0.0
	단독/다세대 등	83.8	7.1	9.1	1.6	10.1	30.0	50.0	20.0	0.0	0.0
주택유형	자가	86.2	4.6	9.2	1.6	8.3	33.3	22.2	33.3	11.1	0.0
	전월세/기타	76.5	13.2	10.3	1.9	10.3	14.3	71.4	14.3	0.0	0.0
노인 가구원	있음	83.3	7.4	9.3	1.7	8.6	28.6	42.9	28.6	0.0	0.0
	없음	73.3	13.3	13.3	1.9	13.3	0.0	50.0	0.0	50.0	0.0
장애인	있음	60.0	10.0	30.0	2.6	20.0	25.0	37.5	25.0	12.5	0.0
	없음	89.1	7.3	3.6	1.4	5.8	25.0	50.0	25.0	0.0	0.0
아동	있음	80.0	0.0	20.0	1.9	10.0	100.0	0.0	0.0	0.0	0.0
	없음	82.6	8.4	9.0	1.7	9.0	20.0	46.7	26.7	6.7	0.0
맞벌이	맞벌이	68.8	31.3	0.0	1.6	18.8	33.3	66.7	0.0	0.0	0.0
	외벌이/기타	83.9	5.6	10.6	1.7	8.1	23.1	38.5	30.8	7.7	0.0
경제상황	어려움	83.7	9.3	7.0	1.6	8.1	14.3	42.9	42.9	0.0	0.0
	보통	79.2	8.3	12.5	1.8	11.1	25.0	50.0	12.5	12.5	0.0
	여유로움	89.5	0.0	10.5	1.6	5.3	100.0	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88.9	0.0	11.1	1.8	0.0	0.0	0.0	0.0	0.0	0.0
	중	83.0	6.0	11.0	1.7	9.0	44.4	22.2	22.2	11.1	0.0
	하	80.9	11.8	7.4	1.7	10.3	0.0	71.4	28.6	0.0	0.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85.2	6.8	8.0	1.6	10.2	33.3	44.4	22.2	0.0	0.0
	25%~75%	80.9	10.3	8.8	1.7	7.4	20.0	60.0	20.0	0.0	0.0
	75%초과	76.2	4.8	19.0	2.1	9.5	0.0	0.0	50.0	50.0	0.0

-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은 돌봄에 따른 직업유지 곤란, 소진 과 같은 신체·정신적 부담 등에 관련된 조사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23]과 <표 5-43>과 같음.
-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N=177) 이들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75.1%로 조사되었고,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4.5%였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7점으로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의 어려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음.
- 가구특성에 따른 어려움의 정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만 어려움의 정도가 2.6점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그림 5-23] 어려움 정도 -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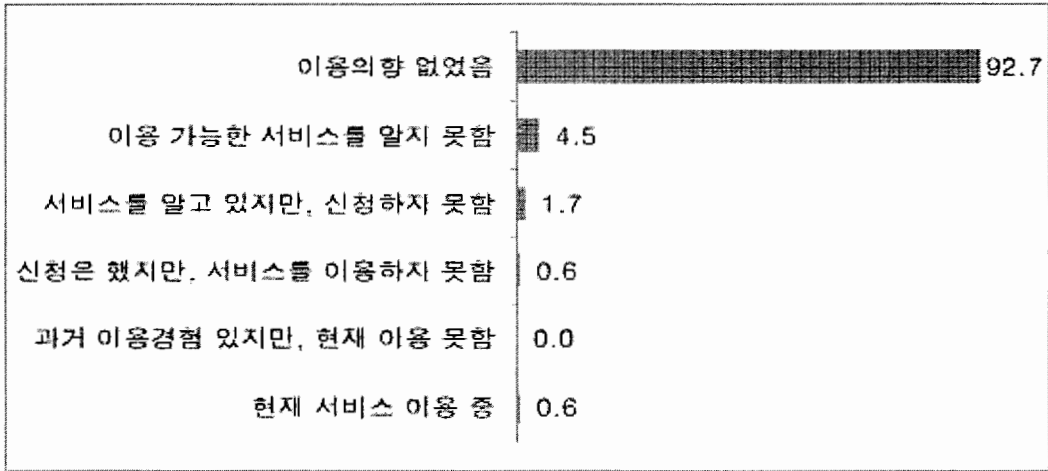


[그림 5-24]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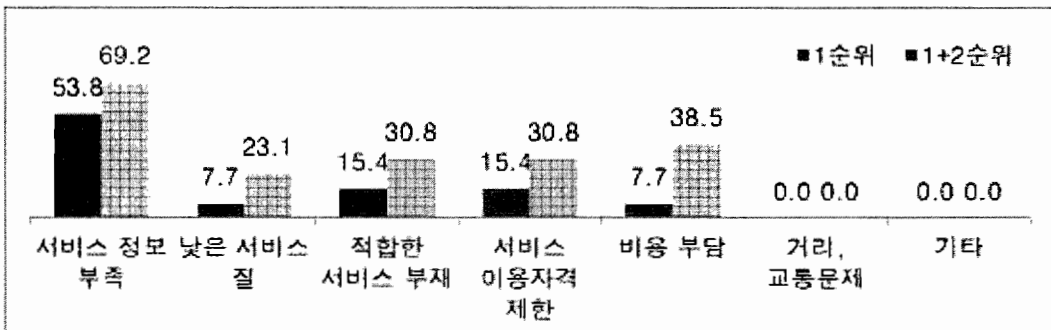


-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를 위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9.0%가 필요성하다고 응답하였음. 가구특성별로는 장애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가구규모가 3인 이상인 경우는 더 낮았음.
-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를 위한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16) 구체적인 지원 및 서비스 내용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 요구가 가장 높았고,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할 때에는 종합적인 상담/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그림 5-24] 참조)
- 가구특성별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선호도 차이는 매우 제한된 사례수로 인하여 유의미한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표 5-43>의 수치만 참조.
-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92.7%가 이용의향이 없었다고 응답함.([그림 5-25] 참조)
- 한편,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13) 불편사항으로는 1순위, 1+2순위 모두 서비스 정보 부족을 지적한 경우가 많았음.([그림 5-26] 참조)

[그림 5-25]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정렬 -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그림 5-26]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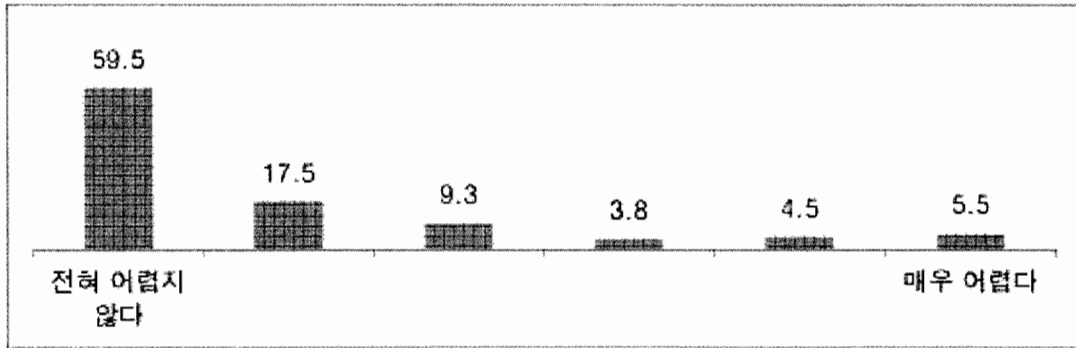
㉔ 생활여건 및 안전 영역

i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은 본 조사에 참여한 전체 400가구를 대상으로 식사, 교육, 의복구입, 공과금 연체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지 묻는 문항으로, 분석 결과는 [그림 5-27]과 <표 5-44>와 같음.

- 전체 가구의 응답 분포를 보면 10가구 중 6가구 정도(59.5%)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어렵지 않은 편에 속하는 2점과 3점의 응답비율도 각각 17.5%와 9.3%로 전체의 75% 이상이 기초생활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5.5%였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9점으로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경향성을 확인하였음.

[그림 5-27] 어려움 정도 - 기초생활 해결(%)



- 기초생활유지의 어려움 정도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표 5-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먼저 가구 특성에 따른 욕구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1인 가구(2.5점), 노인(2.3점) 및 장애인 가구(2.9점)의 어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컸음.
- 무엇보다 경제적 여건의 차이도 두드러졌는데, 전월세 거주 가구(2.3점)는 전체 평균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지만,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한 가구(2.9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가구(3.3점)의 아동 돌봄 어려움 인식이 높았음. 또한, 실제 가처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응답가구의 하위 25% 미만에 속하는 가구의 어려움(2.9점)도 상대적으로 컸음.
- 종합하면, 통상적인 취약 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기초생활유지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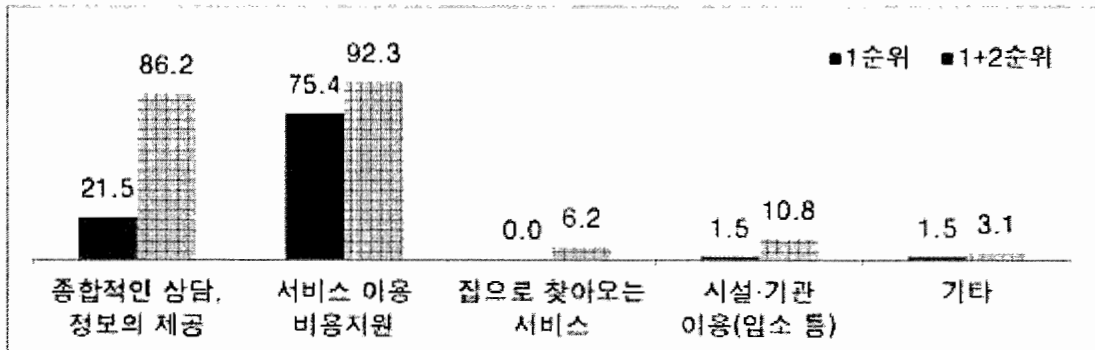
<표 5-44> 기초생활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 서비스 인식(전체 가구 응답)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지원	제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77.0	13.0	10.0	1.9	16.3	21.5	75.4	1.5	0.0	1.5	
가구규모	1인 가구	59.8	19.5	20.7	2.5	34.1	10.7	85.7	3.6	0.0	0.0
	2인 가구	77.5	11.7	10.8	1.9	15.0	27.8	72.2	0.0	0.0	0.0
	3인 이상	83.8	11.1	5.1	1.7	9.6	31.6	63.2	0.0	0.0	5.3
거주형태	아파트	80.3	11.7	8.1	1.8	13.5	30.0	66.7	0.0	0.0	3.3
	단독/다세대 등	72.9	14.7	12.4	2.1	19.8	14.3	82.9	2.9	0.0	0.0
주택유형	자가	83.3	10.0	6.8	1.7	10.9	16.7	79.2	0.0	0.0	4.2
	전월세/기타	69.3	16.8	14.0	2.3	22.9	24.4	73.2	2.4	0.0	0.0
노인	있음	64.2	18.5	17.3	2.3	29.6	25.0	72.9	2.1	0.0	0.0
	없음	85.7	9.2	5.0	1.6	7.1	11.8	82.4	0.0	0.0	5.9
장애인	있음	57.1	11.9	31.0	2.9	42.9	16.7	77.8	5.6	0.0	0.0
	없음	79.3	13.1	7.5	1.8	13.1	23.4	74.5	0.0	0.0	2.1
아동	있음	87.0	9.3	3.7	1.6	6.5	14.3	71.4	0.0	0.0	14.3
	없음	73.3	14.4	12.3	2.1	19.9	22.4	75.9	1.7	0.0	0.0
맞벌이	맞벌이	93.6	3.8	2.6	1.3	2.6	50.0	0.0	0.0	0.0	50.0
	외벌이/기타	73.0	15.2	11.8	2.1	19.6	20.6	77.8	1.6	0.0	0.0
경제상황	어려움	49.3	26.4	24.3	2.9	39.3	18.2	80.0	0.0	0.0	1.8
	보통	90.9	6.2	2.9	1.5	4.3	44.4	44.4	11.1	0.0	0.0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지원	재가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여유로움	96.1	3.9	0.0	1.2	2.0	0.0	10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100.0	0.0	0.0	1.1	0.0	0.0	0.0	0.0	0.0	
	중	88.2	9.6	2.2	1.5	6.6	38.9	61.1	0.0	0.0	
	하	41.2	25.5	33.3	3.3	46.1	14.9	80.9	2.1	0.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49.0	23.0	28.0	2.9	47.0	14.9	83.0	2.1	0.0	
	25%~75%	80.6	13.4	6.0	1.8	9.0	38.9	55.6	0.0	0.0	
	75%초과	98.0	2.0	0.0	1.2	0.0	0.0	0.0	0.0	0.0	

- 기초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6.3%로 조사되었으며, 83.8%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5-44> 참조)
- 가구특성에 따른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전월세 거주, 노인 가구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장애인 가구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경제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가처분 소득)에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40% 수준 이상을 보였음.
- 저소득 취약계층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기초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외부 지원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 5-28]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기초생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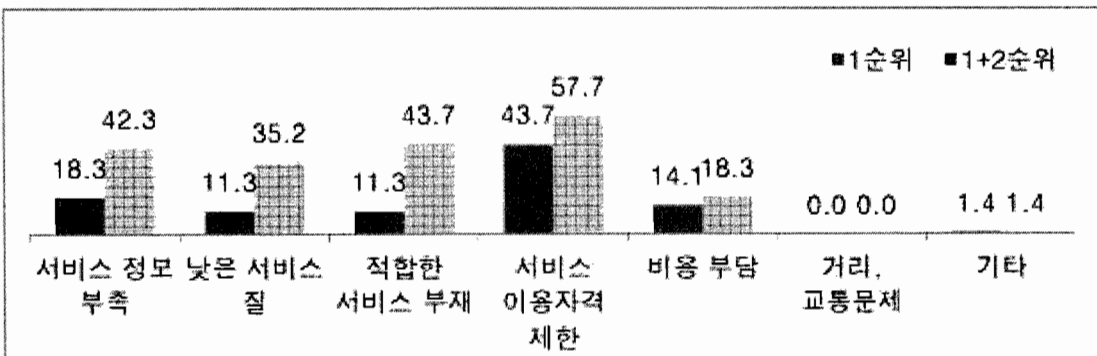
- 기초생활 해결을 위해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65)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및 서비스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75.4%로 가장 높았고(1순위 기준), 1+2순위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92.3%)과 더불어 종합적인 상담, 정보 제공(86.2%)도 매우 높게 나타남.([그림 5-28] 참조)
- 가구특성별로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의 차이는 크지 않아서, 거의 모든 범주에서 이용료 등 비용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다만, 3인 이상 가구, 아파트 거주, 맞벌이 가구, 경제적 형편이 중간에 속하는 경우 상담 및 정보제공의 필요성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인 가구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이용료 등 비용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응답한 비율이 80%를 상회하였음.

- 기초생활 해결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5가구 중 4가구(82.3%) 정도는 이용의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가운데,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는 3.8%로 조사됨. ([그림 5-29] 참조)
- 기초생활 해결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는(N=71)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43.7%)을 지목한 경우가 많았으며, 서비스 정보 부족(18.3%), 비용부담(14.1%)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음.([그림 5-30] 참조)
- 한편,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기준으로는 이용자격 제한(57.7%) 외에 적합한 서비스 부재(43.7%), 서비스 정보 부족(42.3%), 낮은 서비스 질(35.2%) 등이 고루 지적되었음.

[그림 5-29]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기초생활 해결(%)



[그림 5-30]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기초생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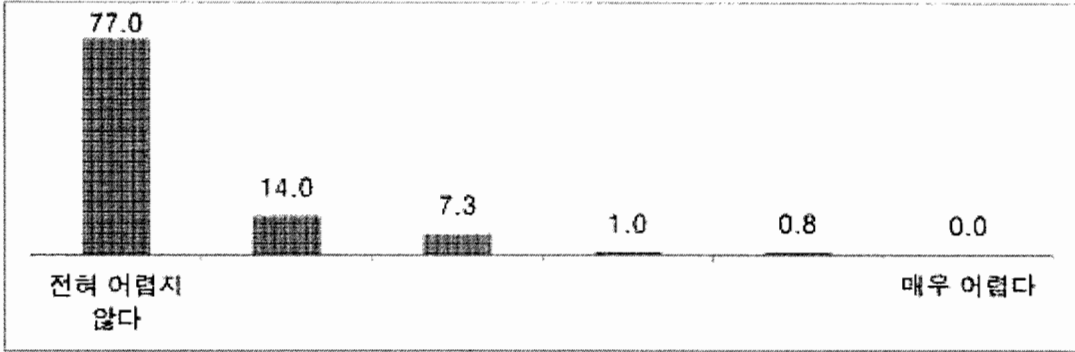


<표 5-45> 가족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응답)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91.0	8.3	0.8	1.3	1.8	28.6	57.1	0.0	0.0	14.3
가구규모	1인 가구	84.6	13.2	2.2	1.3	3.3	66.7	33.3	0.0	0.0
	2인 가구	90.8	9.2	0.0	1.4	0.8	0.0	100.0	0.0	0.0
	3인 이상	89.9	9.6	0.5	1.4	1.5	0.0	66.7	0.0	33.3
거주형태	아파트	91.0	8.5	0.4	1.3	1.3	33.3	33.3	0.0	33.3
	단독/다세대 등	91.0	7.9	1.1	1.4	2.3	25.0	75.0	0.0	0.0
주택유형	자가	95.0	4.5	0.5	1.2	1.4	0.0	66.7	0.0	33.3
	전월세/기타	86.0	12.8	1.1	1.5	2.2	50.0	50.0	0.0	0.0
노인 가구원	있음	90.1	8.6	1.2	1.3	2.5	25.0	75.0	0.0	0.0
	없음	91.6	8.0	0.4	1.3	1.3	33.3	33.3	0.0	33.3
장애인	있음	90.5	7.1	2.4	1.4	4.8	50.0	50.0	0.0	0.0
	없음	91.1	8.4	0.6	1.3	1.4	20.0	60.0	0.0	20.0
아동	있음	89.8	9.3	0.9	1.4	1.9	0.0	100.0	0.0	0.0
	없음	91.4	7.9	0.7	1.3	1.7	40.0	40.0	0.0	20.0
맞벌이	맞벌이	93.6	6.4	0.0	1.3	0.0	0.0	0.0	0.0	0.0
	외벌이/기타	90.4	8.7	0.9	1.4	2.2	28.6	57.1	0.0	14.3
경제상황	어려움	82.9	15.0	2.1	1.6	3.6	40.0	60.0	0.0	0.0
	보통	94.7	5.3	0.0	1.3	0.5	0.0	100.0	0.0	0.0
	여유로움	98.0	2.0	0.0	1.1	2.0	0.0	0.0	0.0	100.0
사회경제 지위	상	100.0	0.0	0.0	1.0	0.0	0.0	0.0	0.0	0.0
	중	90.8	9.2	0.0	1.3	1.1	0.0	66.7	0.0	33.3
	하	89.2	7.8	2.9	1.4	3.9	50.0	50.0	0.0	0.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91.0	6.0	3.0	1.4	5.0	40.0	60.0	0.0	0.0
	25%~75%	89.1	10.9	0.0	1.4	0.5	0.0	100.0	0.0	0.0
	75%초과	94.9	5.1	0.0	1.2	1.0	0.0	0.0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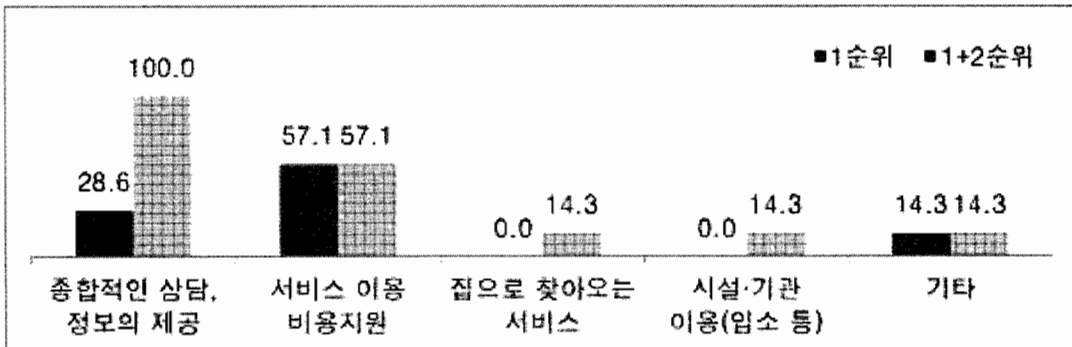
-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은 가족 간의 갈등, 소통 및 역할의 어려움 등에 관련된 조사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31]과 <표 5-45>와 같음.
- 전체 응답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77.0%에 달한 반면,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3점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어려움은 거의 없다는 경향을 보였고,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 가족 구성원 간 관계를 위해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8%만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굳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표 5-45> 참조)
- 가구특성에 따른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모두 5%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음.

[그림 5-31] 어려움 정도 - 가족 구성원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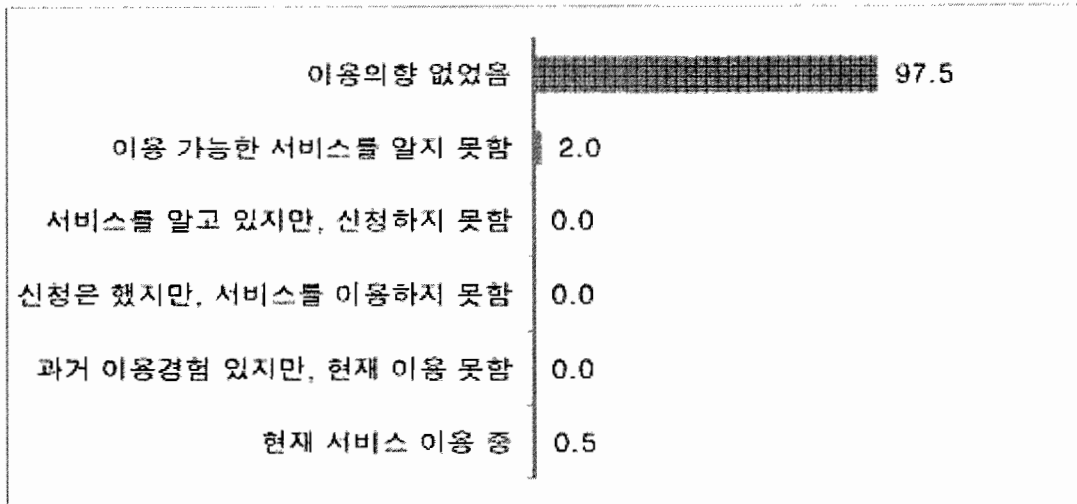
□ 가족 구성원 간 관계에 대해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7)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57.1%), 종합적인 상담/정보의 제공(28.6%), 기타(14.3%) 등의 순으로 조사됨.([그림 5-32]참조)

[그림 5-32]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가족 구성원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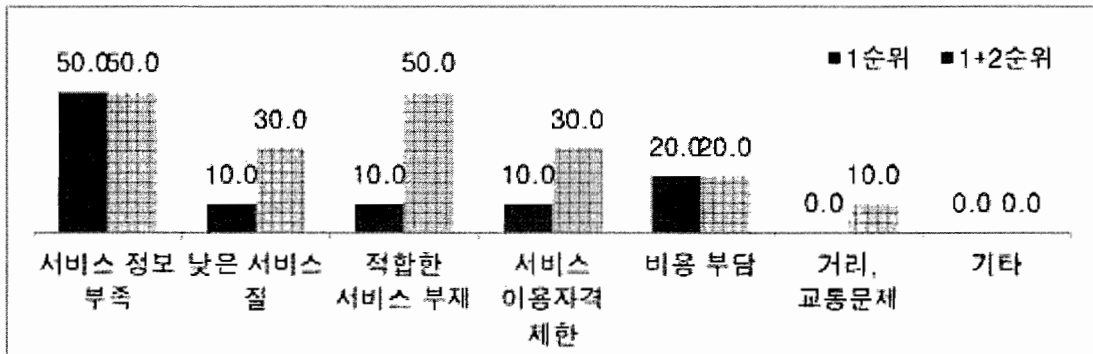


- 가구특성별로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의 차이는 사례수가 매우 적어 유의미한 분석이 어려움.
- 한편,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대부분(97.5%) 이용의향이 없었다고 응답함.([그림 5-33] 참조)
-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10) 주요 불편사항으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이 5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비용 부담이 20.0%로 나타났다.([그림 5-34] 참조)

[그림 5-33]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자·신청·이용 경험 - 가족 구성원 간 관계(%)



[그림 5-34]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가족 구성원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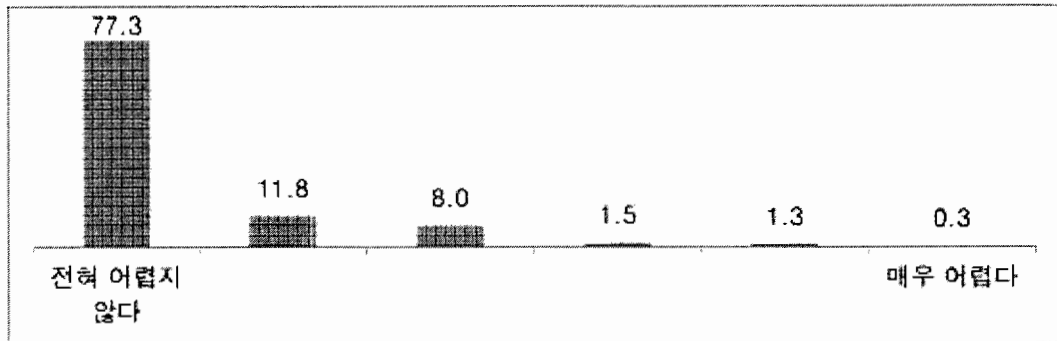


<표 5-46>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 관계형성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전체 가구 응답)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료 지원	제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89.0	9.5	1.5	1.4	1.8	42.9	42.9	0.0	0.0	14.3
가구규모	1인 가구	87.8	7.3	4.9	1.4	3.7	33.3	66.7	0.0	0.0	0.0
	2인 가구	87.5	11.7	0.8	1.4	0.8	100.0	0.0	0.0	0.0	0.0
	3인 이상	90.4	9.1	0.5	1.4	1.5	33.3	33.3	0.0	0.0	33.3
거주형태	아파트	87.9	10.8	1.3	1.4	1.3	66.7	33.3	0.0	0.0	0.0
	단독/다세대 등	90.4	7.9	1.7	1.4	2.3	25.0	50.0	0.0	0.0	25.0
주택유형	자가	93.7	5.0	1.4	1.3	1.4	66.7	0.0	0.0	0.0	33.3
	전월세/기타	83.2	15.1	1.7	1.5	2.2	25.0	75.0	0.0	0.0	0.0
노인 가구원	있음	89.5	8.6	1.9	1.3	1.9	33.3	66.7	0.0	0.0	0.0
	없음	88.7	10.1	1.3	1.4	1.7	50.0	25.0	0.0	0.0	25.0
장애인	있음	90.5	7.1	2.4	1.4	4.8	100.0	0.0	0.0	0.0	0.0
	없음	88.8	9.8	1.4	1.4	1.4	20.0	60.0	0.0	0.0	20.0
아동	있음	89.8	9.3	0.9	1.4	1.9	50.0	50.0	0.0	0.0	0.0
	없음	88.7	9.6	1.7	1.4	1.7	40.0	40.0	0.0	0.0	20.0
맞벌이	맞벌이	85.9	12.8	1.3	1.4	0.0	0.0	0.0	0.0	0.0	0.0
	외벌이/기타	89.8	8.7	1.6	1.4	2.2	42.9	42.9	0.0	0.0	14.3
경제상황	어려움	82.9	13.6	3.6	1.6	2.9	25.0	75.0	0.0	0.0	0.0
	보통	91.4	8.1	0.5	1.3	1.4	66.7	0.0	0.0	0.0	33.3
	여유로움	96.1	3.9	0.0	1.2	0.0	0.0	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96.3	3.7	0.0	1.1	0.0	0.0	0.0	0.0	0.0	0.0
	중	90.4	9.6	0.0	1.3	1.5	50.0	25.0	0.0	0.0	25.0
	하	83.2	10.9	5.9	1.6	3.0	33.3	66.7	0.0	0.0	0.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90.0	6.0	4.0	1.3	4.0	50.0	50.0	0.0	0.0	0.0
	25%~75%	87.6	11.9	0.5	1.4	1.0	0.0	50.0	0.0	0.0	50.0
	75%초과	90.9	8.1	1.0	1.3	1.0	100.0	0.0	0.0	0.0	0.0

-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어려움은 필요 시 도움 받을 곳이 있는지 교류에 어려움이 없는 지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35]와 <표 5-46>과 같음.
- 전체 응답 가구를 대상으로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77.3%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마포구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는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었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4점으로 산출되었고,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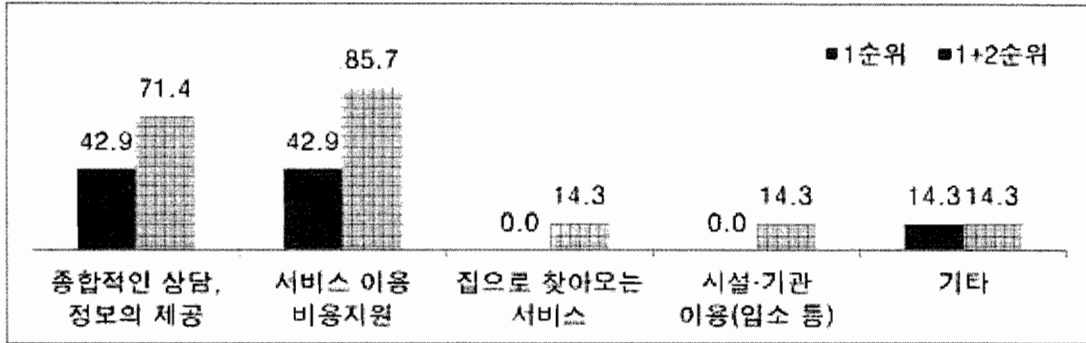
[그림 5-35] 어려움 정도 ·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 관계(%)



-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 관계형성 어려움에 대해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으며,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표 5-46> 참조)
 - 다만,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모두 5%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음.

- 외부의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N=7)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상담, 정보제공과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각각 42.9%로 조사되었고,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할 경우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5-36] 참조)
 - 가구특성별로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의 차이는 사례수가 매우 적어 유의미한 분석이 어려움.
 - 한편,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 관계형성의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대부분(97.8%) 이용의향이 없었다고 응답함.([그림 5-37] 참조)
 - 당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자의 경우(N=9) 주요 불편사항으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을 지적한 경우가 절반 이상(55.6%)으로 나타났음([그림 5-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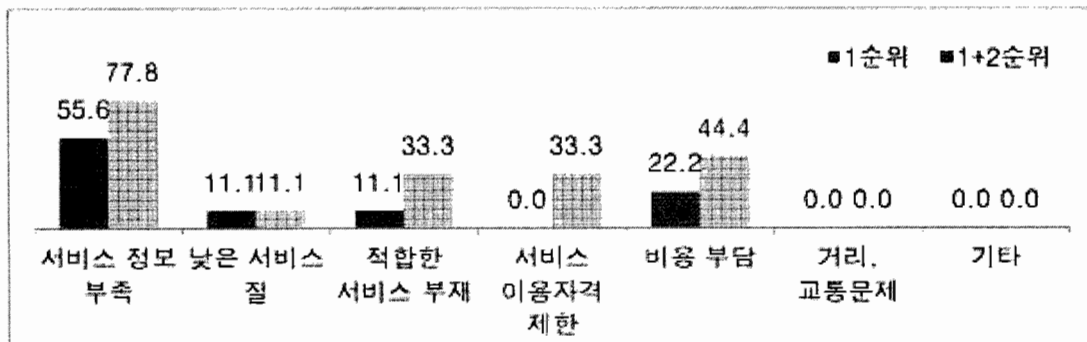
[그림 5-36]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 관계(%)



[그림 5-37]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친인척·이웃·소속집단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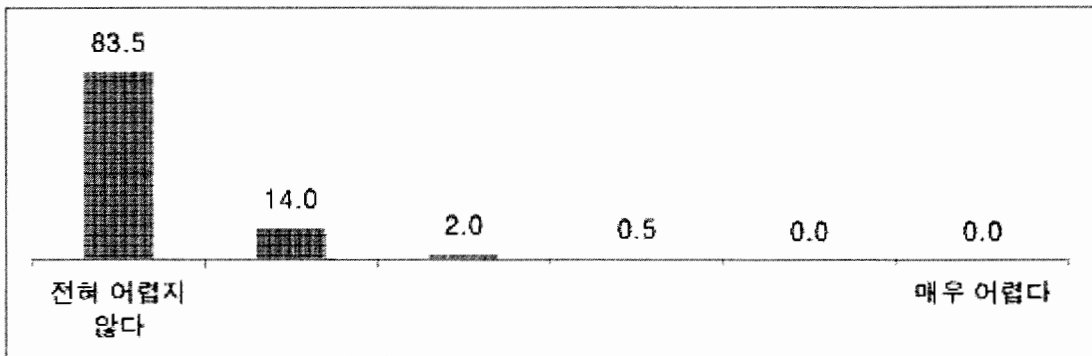
[그림 5-38]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 관계(%)



ii 보호 및 안전

□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은 가족 구성원 간 학대, 폭력, 방임 등에 관한 문항으로, 분석 결과는 [그림 5-39] 및 <표 5-47>과 같음.

[그림 5-39] 어려움 정도 - 가족 내 안전유지(%)



- 전체 가구의 응답 분포를 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83.5%에 달하는 등, 어렵지 않다는에 해당하는 1점~2점 응답비율이 97.5%에 이르렀음. 반면, 어렵다는 응답은 전무한 실정 이었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2점으로 가족 안에서의 학대·폭력·방임의 문제는 본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음.
- 그러나,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는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강함. 조사원과의 면대면 상황에서는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 더 강할 뿐 아니라, 응답자가 가구주 본인이나 배우자로 국한되어 안전문제의 피해자는 응답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따라서 본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만으로 마포구 지역주민들의 가족 내 학대·방임·폭력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
- 결국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결과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바람직성 편견 (social desirability bias)과 응답대상의 한계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표 5-47>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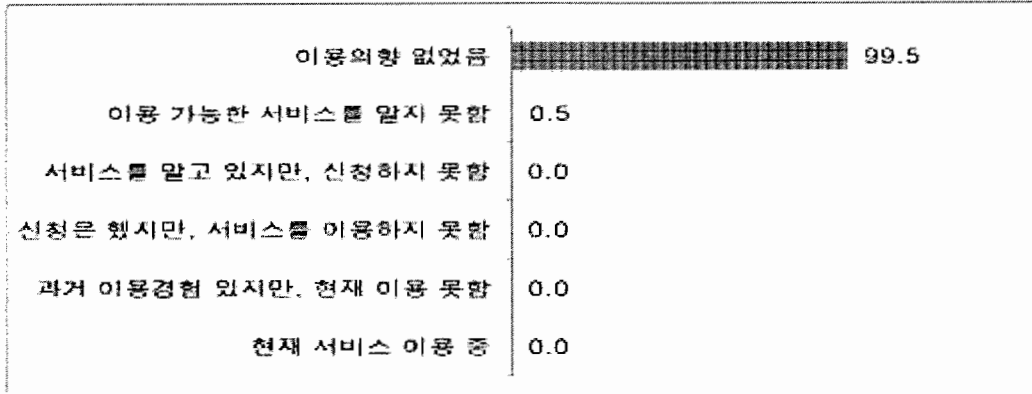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97.5	2.5	0.0	1.2	0.5	100.0	0.0	0.0	0.0	0.0
가구규모	1인 가구	96.4	3.6	0.0	1.2	1.2	100.0	0.0	0.0	0.0
	2인 가구	96.7	3.3	0.0	1.2	0.8	100.0	0.0	0.0	0.0
	3인 이상	98.5	1.5	0.0	1.2	0.5	100.0	0.0	0.0	0.0
거주형태	아파트	98.2	1.8	0.0	1.2	0.4	100.0	0.0	0.0	0.0
	단독/다세대 등	96.6	3.4	0.0	1.2	0.6	100.0	0.0	0.0	0.0
주택유형	자가	98.2	1.8	0.0	1.1	0.5	100.0	0.0	0.0	0.0
	전월세/기타	96.6	3.4	0.0	1.3	0.6	100.0	0.0	0.0	0.0
노인	있음	96.3	3.7	0.0	1.2	0.6	100.0	0.0	0.0	0.0
가구원	없음	98.3	1.7	0.0	1.2	0.4	100.0	0.0	0.0	0.0
장애인	있음	95.2	4.8	0.0	1.3	4.8	100.0	0.0	0.0	0.0
	없음	97.8	2.2	0.0	1.2	0.0	0.0	0.0	0.0	0.0
아동	있음	99.1	0.9	0.0	1.2	0.0	0.0	0.0	0.0	0.0
	없음	96.9	3.1	0.0	1.2	0.7	100.0	0.0	0.0	0.0
맞벌이	맞벌이	97.4	2.6	0.0	1.2	0.0	0.0	0.0	0.0	0.0
	외벌이/기타	97.5	2.5	0.0	1.2	0.6	100.0	0.0	0.0	0.0
경제상황	어려움	97.1	2.9	0.0	1.2	0.0	0.0	0.0	0.0	0.0
	보통	98.1	1.9	0.0	1.2	1.0	100.0	0.0	0.0	0.0
	여유로움	96.1	3.9	0.0	1.2	0.0	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92.6	7.4	0.0	1.2	0.0	0.0	0.0	0.0	0.0
	중	98.9	1.1	0.0	1.2	0.0	0.0	0.0	0.0	0.0
	하	95.1	4.9	0.0	1.2	2.0	100.0	0.0	0.0	0.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97.0	3.0	0.0	1.2	1.0	100.0	0.0	0.0	0.0
	25%~75%	97.0	3.0	0.0	1.3	0.5	100.0	0.0	0.0	0.0
	75%초과	99.0	1.0	0.0	1.1	0.0	0.0	0.0	0.0	0.0

□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응답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 다만, 장애인 가구에서 보통에 해당하는 응답이 4.8%로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으며, 외부지원의 필요성 역시 장애인 가구에서 같은 비율로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음. 그러나, 본 조사의 표집을 통해 추출된 장애인 가구의 사례수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야 함.
- 가족 내 안전 유지를 위해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0.5%(N=2)에 불과하였고, 이에 따라 어떠한 외부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내용 분석은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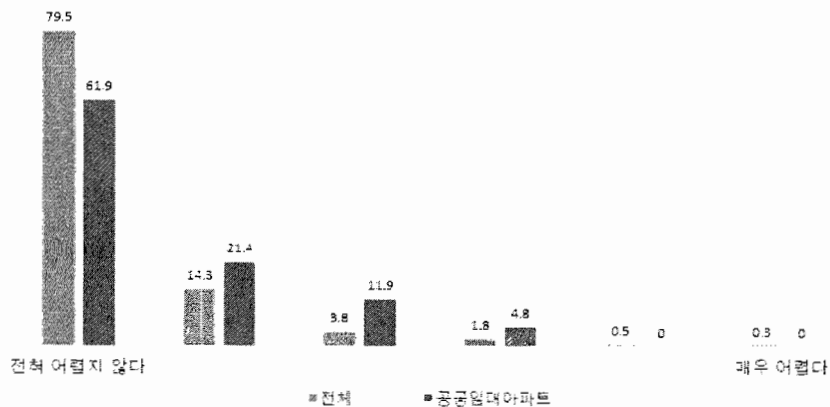
□ 가족 내 안전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99.5%) 이용의향 자체가 없었음.([그림 5-40] 참조)

[그림 5-40]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가족 내 안전유지(%)



-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 어려움은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에서의 학대·폭력·방임 등에 관한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41] 및 <표 5-48>과 같음.
- 전체 가구의 응답 분포를 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79.5%에 달하는 등, 어렵지 않다는에 해당하는 1점~2점 응답비율이 93.8%에 이르렀음. 반면, 어렵다는에 해당하는 5점~6점 응답비율은 0.8%에 불과하였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 역시 1.5점으로 마포구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전유지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가구의 특성에 따른 어려움의 정도도 유의하게 대두되는 것이 없었음.<표 5-48> 참조
- 다만, [그림 5-4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N=42)의 경우 어려움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 5-41] 어려움 정도 -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



- 가족 외부로부터의 안전유지를 위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98.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표 5-48> 참조)
 - 가구특성별 차이를 보면, 장애인 가구, 아동가구, 맞벌이 가구 등 안전문제에 민감한 가구 특성을 가진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에 대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또 높은 소득계층에서 외부지원의 필요성 인식 비율이 더 높았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이라도 대부분 5% 수준을 넘기지 않았음.

- 한편,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매우 적어 (N=6) 유의미한 분석은 어렵지만,
 -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50.0%)이 가장 높게 언급됨. ([그림 5-42] 참조)
 - 1+2순위를 기준으로는 상담 및 정보제공(83.3%) 외에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50.0%), 시설·기관 이용(33.3%), 찾아오는 서비스(16.7%) 등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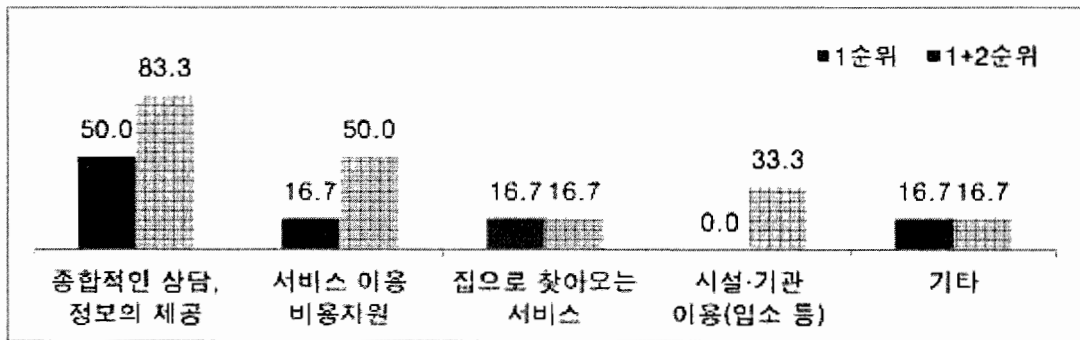
- 가족외부로부터의 안전유지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98.5%)은 이용의향이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그림 5-43] 참조)

<표 5-48>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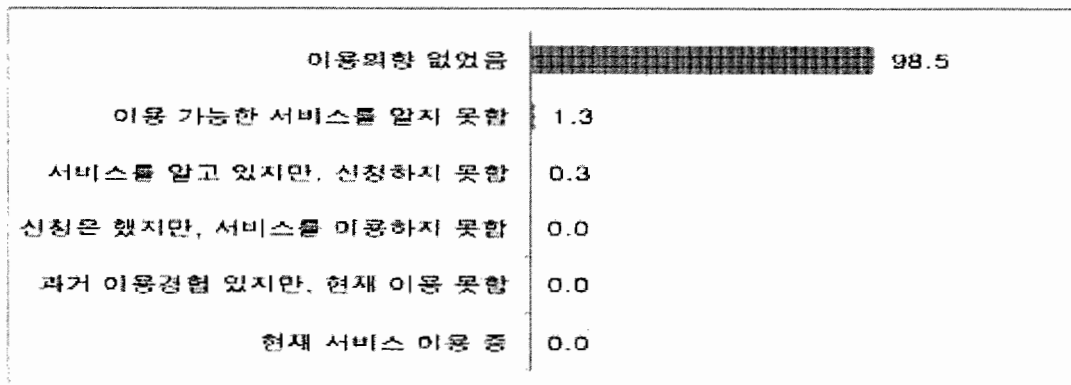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93.8	5.5	0.8	1.3	1.5	50.0	16.7	16.7	0.0	16.7
가구규모	1인 가구	95.1	4.9	0.0	1.2	1.2	100.0	0.0	0.0	0.0
	2인 가구	93.3	6.7	0.0	1.3	0.8	100.0	0.0	0.0	0.0
	3인 이상	93.4	5.1	1.5	1.4	2.0	25.0	25.0	25.0	0.0
거주형태	아파트	93.3	5.4	1.3	1.3	1.8	50.0	0.0	25.0	0.0
	단독/다세대 등	94.4	5.6	0.0	1.3	1.1	50.0	50.0	0.0	0.0
주택유형	자가	96.4	2.7	0.9	1.2	1.4	66.7	0.0	0.0	33.3
	전월세/기타	90.5	8.9	0.6	1.4	1.7	33.3	33.3	33.3	0.0
노인	있음	95.1	4.9	0.0	1.2	0.6	100.0	0.0	0.0	0.0
	없음	92.9	5.9	1.3	1.4	2.1	40.0	20.0	20.0	0.0
장애인	있음	95.2	4.8	0.0	1.2	4.8	100.0	0.0	0.0	0.0
	없음	93.6	5.6	0.8	1.3	1.1	25.0	25.0	25.0	0.0
아동	있음	93.5	3.7	2.8	1.4	3.7	25.0	25.0	25.0	0.0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료 지원	채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맞벌이	없음	93.8	6.2	0.0	1.3	0.7	100.0	0.0	0.0	0.0	0.0
	맞벌이	89.7	6.4	3.8	1.5	5.1	25.0	25.0	25.0	0.0	25.0
	외벌이/기타	94.7	5.3	0.0	1.3	0.6	100.0	0.0	0.0	0.0	0.0
경제상황	어려움	90.7	8.6	0.7	1.4	0.7	0.0	0.0	0.0	0.0	100.0
	보통	94.3	4.8	1.0	1.3	2.4	60.0	20.0	20.0	0.0	0.0
	여유로움	100.0	0.0	0.0	1.2	0.0	0.0	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100.0	0.0	0.0	1.2	0.0	0.0	0.0	0.0	0.0	0.0
	중	95.6	3.7	0.7	1.3	1.1	33.3	33.3	33.3	0.0	0.0
	하	87.3	11.8	1.0	1.4	2.9	66.7	0.0	0.0	0.0	33.3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96.0	4.0	0.0	1.2	1.0	100.0	0.0	0.0	0.0	0.0
	25%~75%	93.0	7.0	0.0	1.4	0.5	100.0	0.0	0.0	0.0	0.0
	75%초과	92.9	4.0	3.0	1.3	4.0	25.0	25.0	25.0	0.0	25.0

[그림 5-42]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



[그림 5-43]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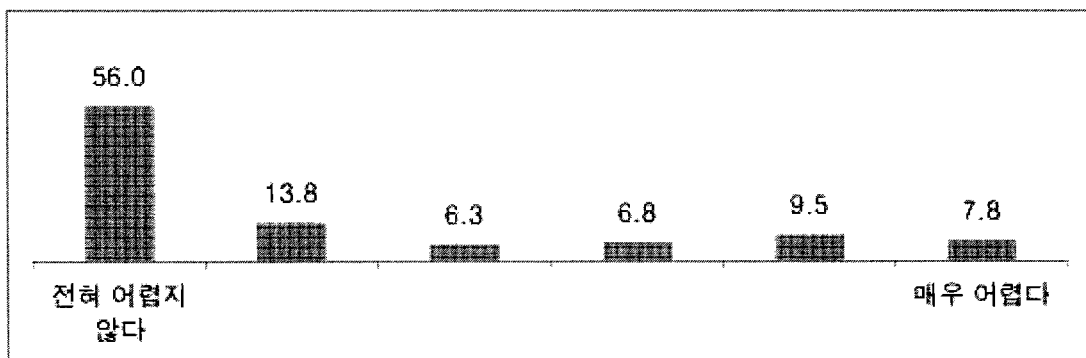


㊤ 건강 영역

i 신체적 건강

-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은 본 조사에 참여한 전체 400가구를 대상으로 신체적 기능 저하, 일상생활 불편과 같은 어려움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44]와 <표 5-49>와 같음.
- 전체 가구의 응답 분포를 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1점)이 56.0%, 어렵지 않다(2점)는 응답은 13.8%로, 이 둘을 합하여 약 70%의 응답자가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음.
- 반면, 어렵다(5점)와 매우 어렵다(6점)를 합한 비율은 17.3%였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2.2점으로 대체적으로 신체적 건강유지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5-44] 어려움 정도 - 신체적 건강 문제(%)



-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정도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표 5-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구 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욕구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어려움 정도가 평균 2.7점으로 3인 이상 가구(1.8점)보다 더 높았고, 이 외에도 단독/다세대 거주 응답자(2.5점), 노인(3.1점) 및 장애인 가구(4.0점)의 어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컸음. 노인들이 1, 2인 가구를 구성할 확률이 더 높고, 단독/다세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엔 노인과 장애인처럼 전통적인 건강취약계층에서 신체적 건강 유지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또한, 경제적 여건의 차이도 두드러졌는데.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한 가구(3.0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가구(3.3점)의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인식이 높았음. 또, 실제 가처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응답가구의 하위 25% 미만에 속하는 가구의 어려움(3.3점)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결국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가구에서 신체적 건강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음.

<표 5-49> 신체적 건강문제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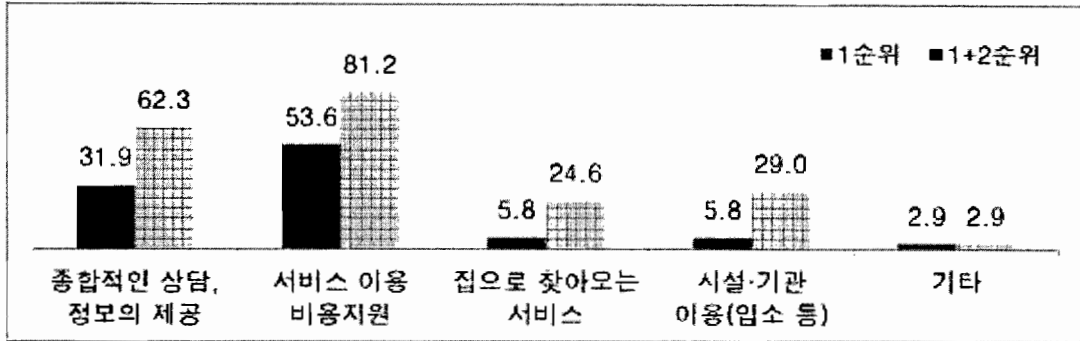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69.8	13.0	17.3	2.2	17.3	31.9	53.6	5.8	5.8	2.9	
가구규모	1인 가구	56.1	18.3	25.6	2.7	24.4	35.0	60.0	0.0	5.0	0.0
	2인 가구	58.3	16.7	25.0	2.7	20.8	44.0	44.0	8.0	4.0	0.0
	3인 이상	82.3	8.6	9.1	1.8	12.1	16.7	58.3	8.3	8.3	8.3
거주형태	아파트	74.4	13.0	12.6	2.0	13.5	33.3	43.3	6.7	10.0	6.7
	단독/다세대 등	63.8	13.0	23.2	2.5	22.0	30.8	61.5	5.1	2.6	0.0
주택유형	자가	67.9	15.4	16.7	2.2	19.0	31.0	52.4	7.1	4.8	4.8
	전월세/기타	72.1	10.1	17.9	2.2	15.1	33.3	55.6	3.7	7.4	0.0
노인 가구원	있음	45.7	21.6	32.7	3.1	32.1	34.6	53.8	5.8	5.8	0.0
	없음	86.1	7.1	6.7	1.6	7.1	23.5	52.9	5.9	5.9	11.8
장애인	있음	26.2	21.4	52.4	4.0	50.0	28.6	61.9	4.8	4.8	0.0
	없음	74.9	12.0	13.1	2.0	13.4	33.3	50.0	6.3	6.3	4.2
아동	있음	89.8	6.5	3.7	1.4	5.6	0.0	50.0	16.7	16.7	16.7
	없음	62.3	15.4	22.3	2.5	21.6	34.9	54.0	4.8	4.8	1.6
맞벌이	맞벌이	87.2	11.5	1.3	1.5	6.4	20.0	40.0	0.0	0.0	40.0
	외벌이/기타	65.5	13.4	21.1	2.4	19.9	32.8	54.7	6.3	6.3	0.0
경제상황	어려움	49.3	20.7	30.0	3.0	30.0	38.1	52.4	2.4	4.8	2.4
	보통	80.9	9.6	9.6	1.8	10.5	27.3	50.0	13.6	9.1	0.0
	여유로움	80.4	5.9	13.7	1.8	9.8	0.0	80.0	0.0	0.0	20.0
사회경제 지위	상	81.5	11.1	7.4	1.7	11.1	0.0	100.0	0.0	0.0	0.0
	중	79.3	10.7	10.0	1.9	11.1	40.0	43.3	6.7	6.7	3.3
	하	41.2	19.6	39.2	3.3	35.3	27.8	58.3	5.6	5.6	2.8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41.0	24.0	35.0	3.3	33.0	30.3	63.6	0.0	6.1	0.0
	25%~75%	78.1	10.4	11.4	1.9	12.9	38.5	46.2	11.5	0.0	3.8
	75%초과	81.8	7.1	11.1	1.7	10.1	20.0	40.0	10.0	20.0	10.0

-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부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7.3%로 조사되었으며, 82.7%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표 5-49> 참조
- 가구특성에 따른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24.4%), 노인(32.1%), 장애인(50.0%) 가구의 응답비율이 높았음.
-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경제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가처분 소득)에서 외부지원

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30% 수준 이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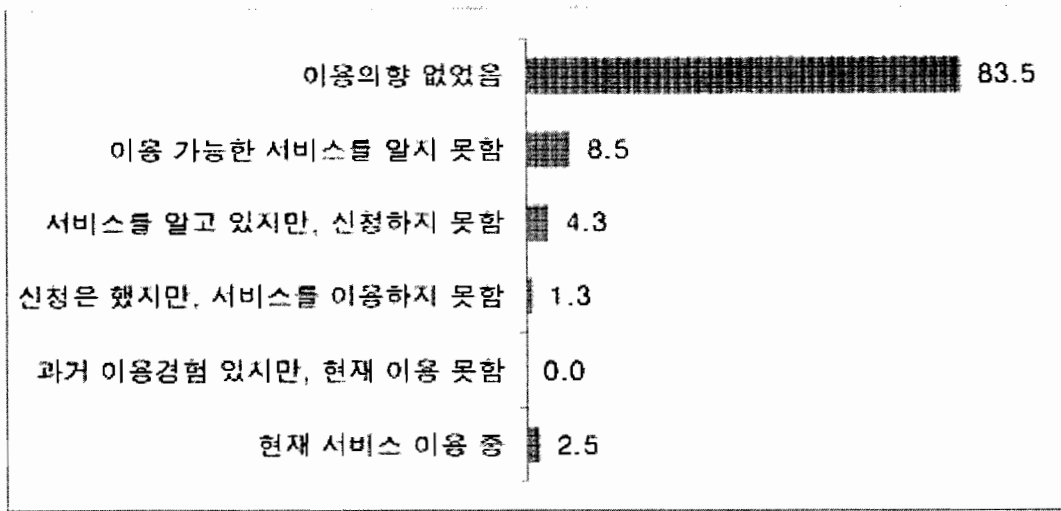
- 결국 신체적 건강문제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건강취약계층(노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 5-45]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신체적 건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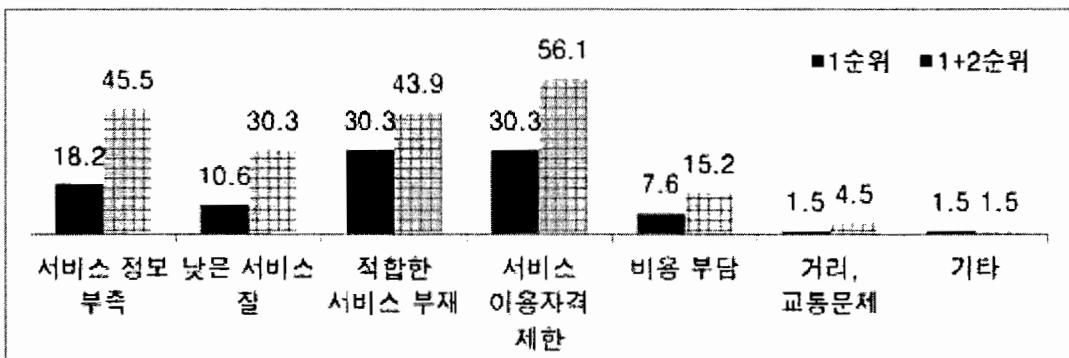


- 신체적 건강 문제에 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69)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꼽은 경우가 5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적인 상담, 정보 제공이 31.9%로 조사됨.(1순위 응답 기준) ([그림 5-45] 참조)
-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아서 거의 모든 범주에서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표 5-49> 참조
-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3.5%로 높았고,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8.5%,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3%로 조사됨. 한편, 현재 서비스 이용 중이라는 경우는 2.5%로 나타남.([그림 5-46] 참조)
- 신체적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66) 주된 불편사항으로는 적합한 서비스 부재와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이 각각 30.3%로 높게 지적되었음.([그림 5-47] 참조)
- 한편,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기준으로는 이용자격 제한이 56.1%로 가장 높게 지적되었으며, 서비스 정보 부족(45.5%), 적합한 서비스 부재(43.9%), 낮은 서비스 질(30.3%) 등이 고루 지적되었음.

[그림 5-46]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신체적 건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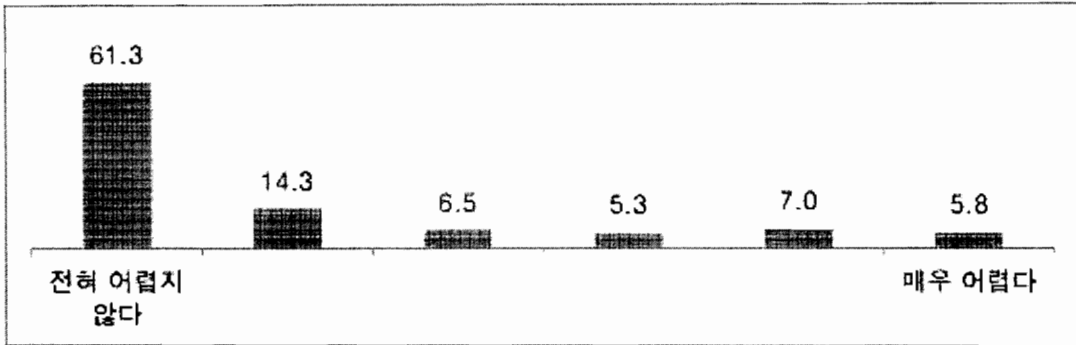


[그림 5-47]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신체적 건강 문제(%)



- 신체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은 병의원의 선택이나 건강관리 지원체계와 관련된 어려움을 묻는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48]과 <표 5-50>과 같음.
- 지난 1년 간 가구 내 구성원들의 신체적 건강 관리에 대한 어려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10가구 중 6가구 정도(61.3%)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어렵다는 5.8%로 조사됨. 1점과 2점을 합하여 어렵지 않음 응답비율을 계산하면 75.5%, 5점과 6점을 합하여 어려움 응답을 구하면 12.8%로 나타났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2.0점으로 대체적으로 신체적 건강 관리와 관련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5-48] 어려움 정도 - 신체적 건강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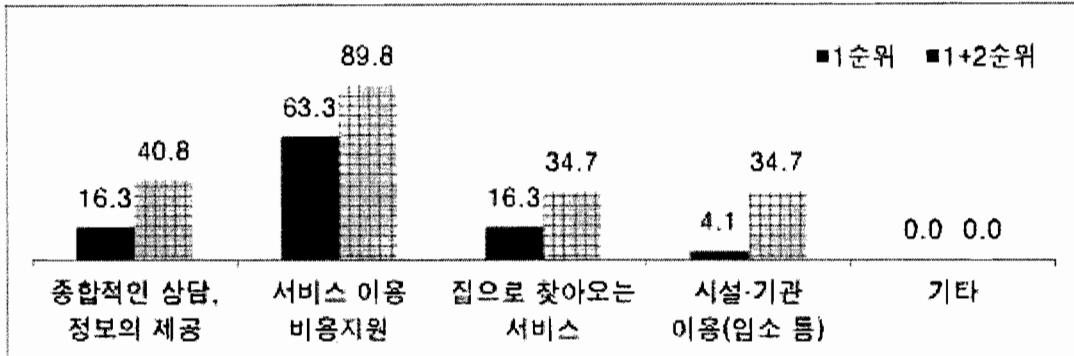
- 신체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정도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표 5-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음.
- 앞서 신체적 건강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어려움 정도가 평균 2.3점으로 3인 이상 가구보다 더 높았고, 이 외에도 노인(2.7점) 및 장애인 가구(3.4점)의 어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컸음.
- 경제적 여건의 차이도 앞선 분석들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한 가구(2.5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가구(2.9점), 가처분 가구소득을 기준 하위 25% 미만에 속하는 가구(2.6점)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부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2.3%로 조사되었음.<표 5-50> 참조
- 가구특성에 따른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20.7%), 노인(23.5%), 장애인(38.1%) 가구의 응답비율이 높았음.
-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경제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가처분 소득)에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결국 신체적 건강문제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건강취약계층(노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건강 관리와 관련된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표 5-50> 신체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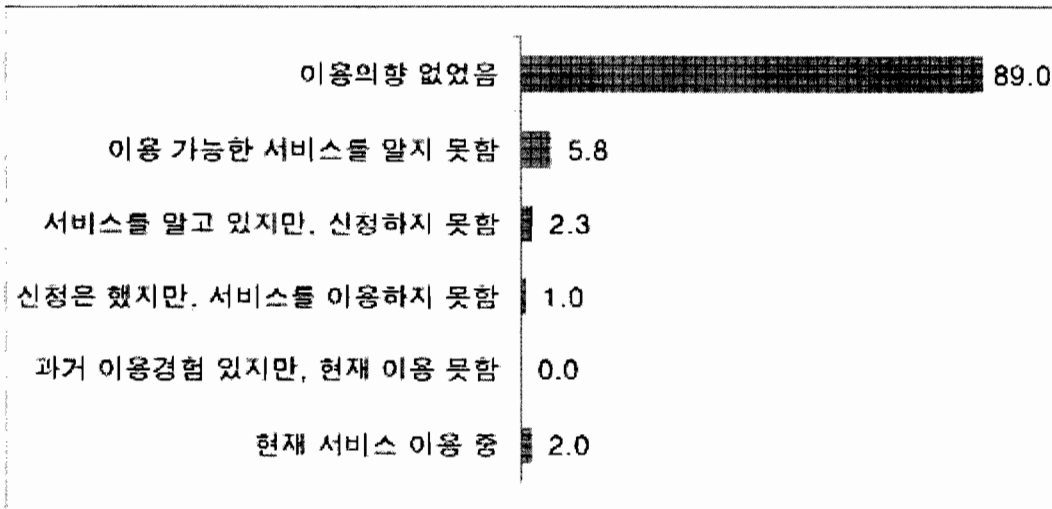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75.5	11.8	12.8	2.0	12.3	16.3	63.3	16.3	4.1	0.0
가구규모	1인 가구	68.3	13.4	18.3	2.3	20.7	23.5	64.7	11.8	0.0
	2인 가구	67.5	16.7	15.8	2.3	11.7	14.3	64.3	21.4	0.0
	3인 이상	83.3	8.1	8.6	1.7	9.1	11.1	61.1	16.7	11.1
거주형태	아파트	77.1	12.6	10.3	1.9	9.4	14.3	47.6	28.6	9.5
	단독/다세대 등	73.4	10.7	15.8	2.1	15.8	17.9	75.0	7.1	0.0
주택유형	자가	73.8	13.6	12.7	2.0	14.0	16.1	58.1	19.4	6.5
	전월세/기타	77.7	9.5	12.8	2.0	10.1	16.7	72.2	11.1	0.0
노인 가구원	있음	58.0	16.7	25.3	2.7	23.5	18.4	60.5	15.8	5.3
	없음	87.4	8.4	4.2	1.5	4.6	9.1	72.7	18.2	0.0
장애인	있음	42.9	21.4	35.7	3.4	38.1	12.5	75.0	6.3	6.3
	없음	79.3	10.6	10.1	1.8	9.2	18.2	57.6	21.2	3.0
아동	있음	92.6	3.7	3.7	1.4	3.7	0.0	50.0	50.0	0.0
	없음	69.2	14.7	16.1	2.2	15.4	17.8	64.4	13.3	4.4
맞벌이	맞벌이	88.5	10.3	1.3	1.4	2.6	50.0	0.0	50.0	0.0
	외벌이/기타	72.4	12.1	15.5	2.1	14.6	14.9	66.0	14.9	4.3
경제상황	어려움	64.3	15.0	20.7	2.5	19.3	22.2	63.0	14.8	0.0
	보통	81.8	9.1	9.1	1.8	8.6	11.1	61.1	16.7	11.1
	여유로움	80.4	13.7	5.9	1.7	7.8	0.0	75.0	25.0	0.0
사회경제 지위	상	81.5	18.5	0.0	1.5	11.1	0.0	66.7	33.3	0.0
	중	83.8	8.1	8.1	1.7	6.6	16.7	61.1	11.1	11.1
	하	52.0	19.6	28.4	2.9	27.5	17.9	64.3	17.9	0.0
가치분 가구소득	25%미만	60.0	17.0	23.0	2.6	23.0	17.4	73.9	8.7	0.0
	25%~75%	81.6	9.0	9.5	1.8	9.0	16.7	61.1	22.2	0.0
	75%초과	78.8	12.1	9.1	1.7	8.1	12.5	37.5	25.0	25.0

-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N=49)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꼽은 경우가 63.3%로 가장 많았음(1순위 기준). 1+2순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비용지원 요구가 89.8%로 매우 높았음.([그림 5-49] 참조)
- 나아가 서비스 이용료 지원에 요구가 가장 높은 것은 가구특성을 막론하고 공통된 경향이 있음.<표 5-50> 참조)

[그림 5-49]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신체적 건강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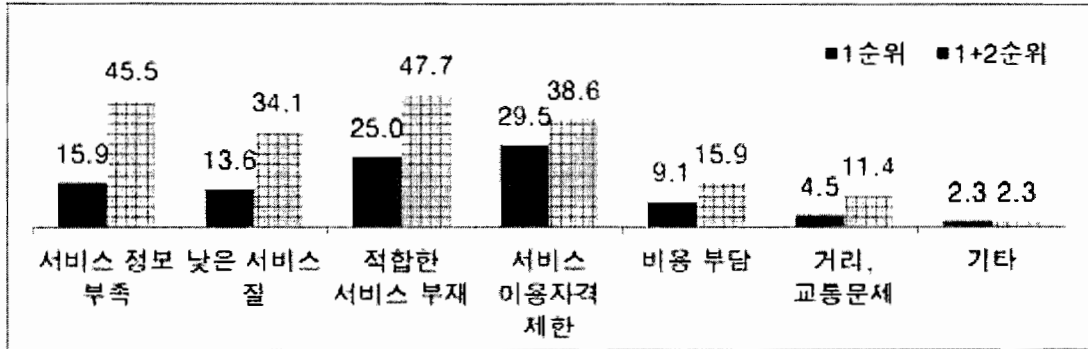
[그림 5-50]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신체적 건강 관리(%)



□ 신체적 건강 관리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이용의향 없었다는 응답이 89.0%로 나타났고 현재 서비스 이용 중이라는 응답은 2.0%로 조사됨.([그림 5-50] 참조)

○ 신체적 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44) 주된 불편사항으로는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29.5%), 적합한 서비스 부재(25.0%), 서비스 정보 부족(15.9%), 낮은 서비스 질(13.6%) 등의 순으로 지적됨. ([그림 5-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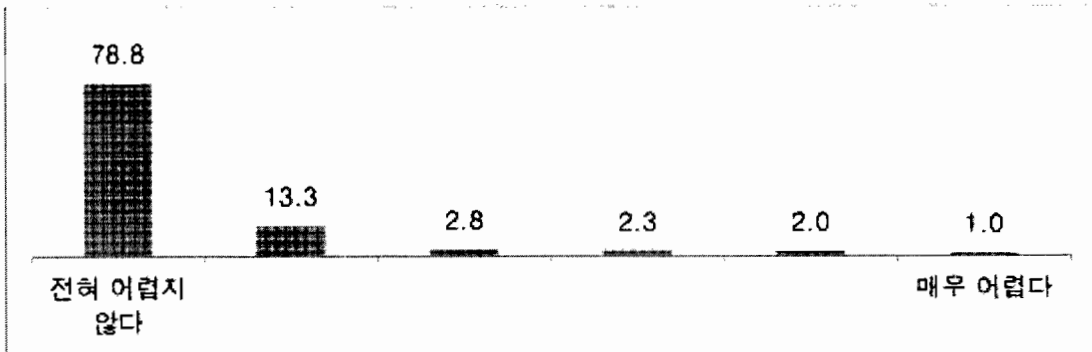
[그림 5-51]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신체적 건강 관리(%)



ii 정신적 건강

□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은 정신적 기능 저하나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과 관련된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52]와 <표 5-51>과 같음.

[그림 5-52] 어려움 정도 - 정신적 건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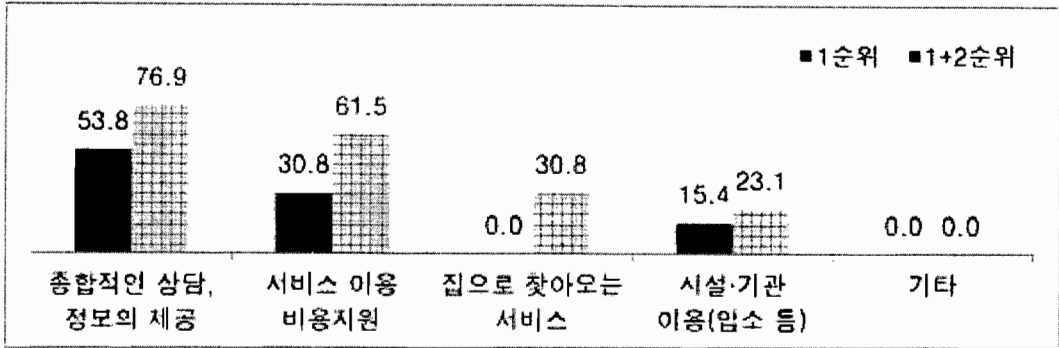
- 지난 1년 간 가구 내에서 정신적 건강 문제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는지 조사한 결과 5가구 중 4가구 정도(78.8%)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13.3%였음. 이 둘을 합하면 92%의 응답자가 정신적 건강문제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음. 반면 매우 어렵고 어려움을 합한 비율은 3.0%에 불과하였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4점으로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51>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응답)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92.0	5.0	3.0	1.4	3.3	53.8	30.8	0.0	15.4	0.0	
가구규모	1인 가구	89.0	7.3	3.7	1.5	6.1	60.0	40.0	0.0	0.0	0.0
	2인 가구	93.3	4.2	2.5	1.4	0.8	100.0	0.0	0.0	0.0	0.0
	3인 이상	92.4	4.5	3.0	1.4	3.5	42.9	28.6	0.0	28.6	0.0
거주형태	아파트	93.3	4.5	2.2	1.3	2.7	50.0	33.3	0.0	16.7	0.0
	단독/다세대 등	90.4	5.6	4.0	1.5	4.0	57.1	28.6	0.0	14.3	0.0
주택유형	자가	92.3	5.4	2.3	1.3	3.2	42.9	28.6	0.0	28.6	0.0
	전월세/기타	91.6	4.5	3.9	1.4	3.4	66.7	33.3	0.0	0.0	0.0
노인	있음	85.8	8.6	5.6	1.6	5.6	44.4	33.3	0.0	22.2	0.0
가구원	없음	96.2	2.5	1.3	1.2	1.7	75.0	25.0	0.0	0.0	0.0
장애인	있음	73.8	16.7	9.5	1.9	9.5	50.0	25.0	0.0	25.0	0.0
	없음	94.1	3.6	2.2	1.3	2.5	55.6	33.3	0.0	11.1	0.0
아동	있음	97.2	0.9	1.9	1.3	0.9	0.0	100.0	0.0	0.0	0.0
	없음	90.1	6.5	3.4	1.4	4.1	58.3	25.0	0.0	16.7	0.0
맞벌이	맞벌이	98.7	1.3	0.0	1.2	0.0	0.0	0.0	0.0	0.0	0.0
	외벌이/기타	90.4	5.9	3.7	1.4	4.0	53.8	30.8	0.0	15.4	0.0
경제상황	어려움	85.7	7.9	6.4	1.6	6.4	66.7	33.3	0.0	0.0	0.0
	보통	94.7	4.3	1.0	1.2	1.4	0.0	33.3	0.0	66.7	0.0
	여유로움	98.0	0.0	2.0	1.3	2.0	100.0	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96.3	0.0	3.7	1.4	3.7	100.0	0.0	0.0	0.0	0.0
	중	94.8	4.1	1.1	1.3	1.5	25.0	25.0	0.0	50.0	0.0
	하	83.3	8.8	7.8	1.7	7.8	62.5	37.5	0.0	0.0	0.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87.0	9.0	4.0	1.5	6.0	66.7	33.3	0.0	0.0	0.0
	25%~75%	93.0	3.5	3.5	1.4	3.0	50.0	33.3	0.0	16.7	0.0
	75%초과	94.9	4.0	1.0	1.3	1.0	0.0	0.0	0.0	100.0	0.0

-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정도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표 5-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음.
-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의 비율은 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 경제상황이 어렵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6점 척도 평균의 차이는 별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모든 범주에서 2점 미만의 평균점수를 보였음.
- 실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신적 건강 문제와 관련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3.3%에 그쳤음.<표 5-51> 참조
- 가구특성에 따른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가구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경제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가처분 소득)에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결국 신체적 건강문제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건강취약계층(노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정신적 건강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더 높았음.

[그림 5-53]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정신적 건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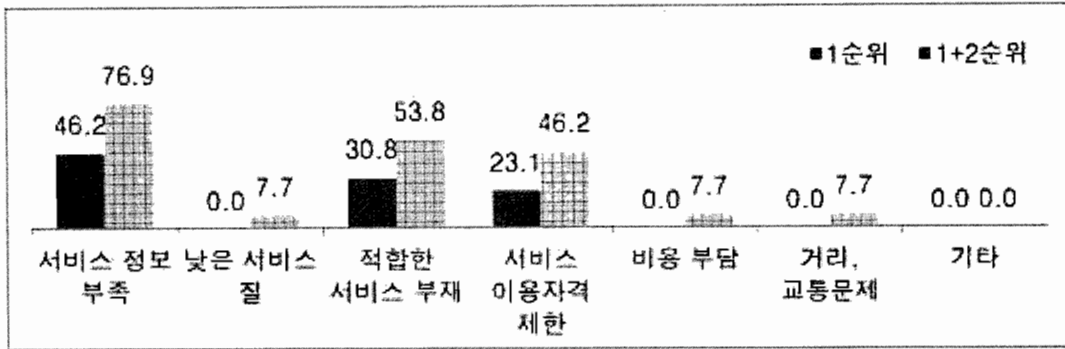


-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13) 구체적인 지원 및 서비스로는 1순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인 상담, 정보 제공을 꼽은 경우가 5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30.8%), 시설·기관 이용(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5-53] 참조)
-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는 사례수가 매우 적어 유의미한 분석이 어려웠으나, 앞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이용료 지원 보다는 상담 및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응답이 더 많았음
- 정신적 건강 문제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96.8%가 이용의향이 없었다고 응답하여,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신 건강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음.([그림 5-54] 참조)
- 해당 사안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13) 불편사항은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이 46.2%, 적합한 서비스 부재 30.8%, 서비스 이용자 격 제한 23.1% 등의 순으로 지적됨.([그림 5-55] 참조)

[그림 5-54]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정신적 건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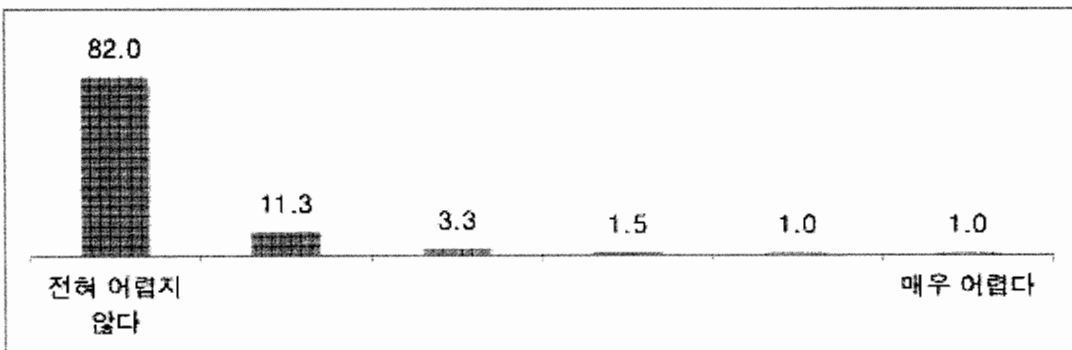
[그림 5-55]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정신적 건강 문제(%)



□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은 정신 건강의 어려움과 관련된 병의원 선택, 건강관리 지원체계의 부재 등에 관한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56] 및 <표 5-52>와 같음.

- 전체 가구의 응답 분포를 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82.0%에 달하는 등, 어렵지 않다는에 해당하는 1점~2점 응답비율이 93.3%에 이르렀음. 반면, 어렵다는 응답은 5점과 6점 응답을 합하여 2.0%에 불과하였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3점으로 정신적 건강관리의 어려움 정도는 크지 않았음.

[그림 5-56] 어려움 정도 - 정신적 건강 관리(%)



[그림 5-57]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정신적 건강 관리(%)



□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응답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 다만, 장애인 가구에서 보통에 해당하는 응답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정신적 건강 관리에 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부분(98.8%)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간 더 높았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부지원의 필요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N=5), 이에 따라 어떠한 외부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내용 분석은 생략함.

<표 5-52>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응답)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지원	재가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93.3	4.8	2.0	1.3	1.3	40.0	40.0	0.0	20.0	0.0
가구규모	1인 가구	91.5	7.3	1.2	1.3	0.0	0.0	0.0	0.0	0.0
	2인 가구	93.3	4.2	2.5	1.4	1.7	50.0	50.0	0.0	0.0
	3인 이상	93.9	4.0	2.0	1.3	1.5	33.3	33.3	0.0	33.3
거주형태	아파트	93.7	4.5	1.8	1.3	1.8	50.0	25.0	0.0	25.0
	단독/다세대 등	92.7	5.1	2.3	1.3	0.6	0.0	100.0	0.0	0.0
주택유형	자가	94.1	4.1	1.8	1.3	1.4	33.3	33.3	0.0	33.3
	전월세/기타	92.2	5.6	2.2	1.4	1.1	50.0	50.0	0.0	0.0
노인	있음	90.1	6.2	3.7	1.4	1.9	33.3	33.3	0.0	33.3
가구원	없음	95.4	3.8	0.8	1.2	0.8	50.0	50.0	0.0	0.0
장애인	있음	81.0	14.3	4.8	1.8	2.4	0.0	100.0	0.0	0.0
	없음	94.7	3.6	1.7	1.3	1.1	50.0	25.0	0.0	25.0
아동	있음	97.2	1.9	0.9	1.2	0.9	0.0	100.0	0.0	0.0
	없음	91.8	5.8	2.4	1.4	1.4	50.0	25.0	0.0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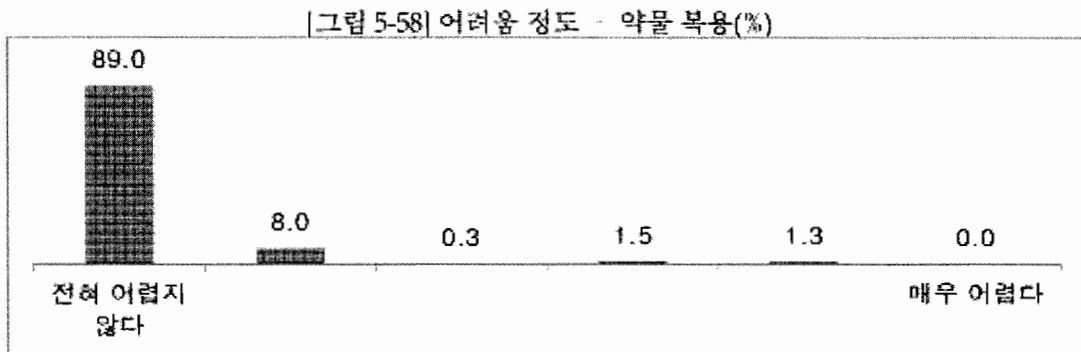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 지 않음	보통	어려 움	6점 평균		상당 정보	이용 료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맞벌이	맞벌이	98.7	1.3	0.0	1.1	0.0	0.0	0.0	0.0	0.0	0.0
	외벌이/기타	91.9	5.6	2.5	1.4	1.6	40.0	40.0	0.0	20.0	0.0
경제상황	어려움	90.0	6.4	3.6	1.5	2.1	33.3	66.7	0.0	0.0	0.0
	보통	94.7	4.3	1.0	1.2	0.5	0.0	0.0	0.0	100.0	0.0
	여유로움	96.1	2.0	2.0	1.2	2.0	100.0	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92.6	3.7	3.7	1.3	3.7	100.0	0.0	0.0	0.0	0.0
	중	95.2	3.7	1.1	1.2	0.4	0.0	0.0	0.0	100.0	0.0
	하	88.2	7.8	3.9	1.5	2.9	33.3	66.7	0.0	0.0	0.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90.0	8.0	2.0	1.4	2.0	50.0	50.0	0.0	0.0	0.0
	25%~75%	94.5	3.0	2.5	1.3	1.0	50.0	50.0	0.0	0.0	0.0
	75%초과	93.9	5.1	1.0	1.2	1.0	0.0	0.0	0.0	100.0	0.0

□ 정신적 건강 관리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98.3%) 이용의향 자체가 없었음.([그림 5-57] 참조)

□ 약물 복용의 어려움은 약물 오남용, 약물복용 지원체계 부재, 치료거부 문제 등에 관한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58] 및 <표 5-53>과 같음.

○ 전체 가구의 응답 분포를 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89.0%에 달하는 등, 어렵지 않다는에 해당하는 1점~2점 응답비율이 97.0%에 이르렀음. 반면, 어렵다는 응답은 5점과 6점 응답을 합하여 1.3%에 불과하였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2점으로 약물 복용의 어려움 정도는 크지 않았음.



□ 약물 복용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응답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 다만, 장애인 가구에서 보통에 해당하는 응답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약물복용과 관련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서도 극소수(0.8%)의 가구만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여 크게 어려움을 느끼거나 심각성을 인식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음. 다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응답자들이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약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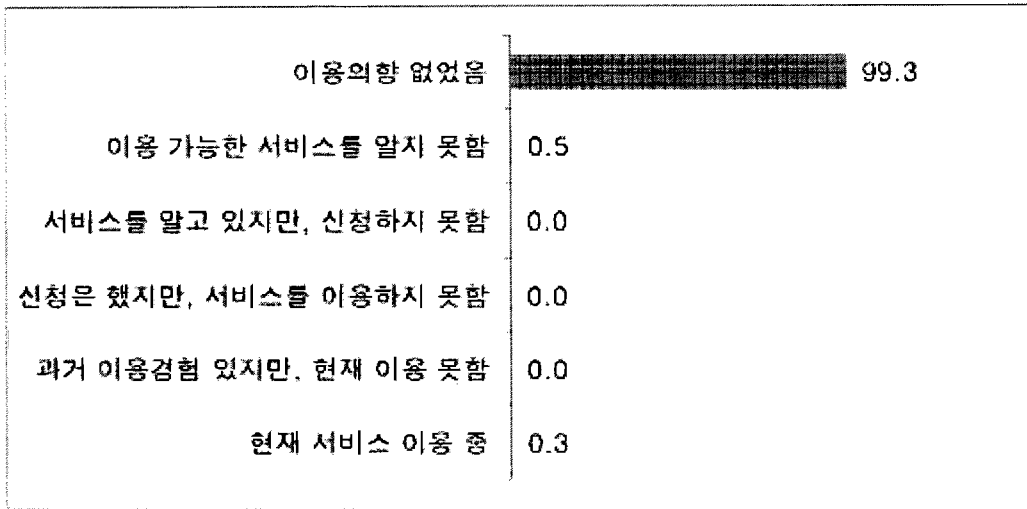
- 약물 복용과 관련된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여(N=3), 어떠한 외부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내용 분석은 생략함.

<표 5-53> 약물복용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 가구 응답)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료 지원	제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97.0	1.8	1.3	1.2	0.8	33.3	66.7	0.0	0.0	0.0
가구규모	1인 가구	95.1	1.2	3.7	1.2	2.4	0.0	100.0	0.0	0.0
	2인 가구	94.2	5.0	0.8	1.3	0.8	100.0	0.0	0.0	0.0
	3인 이상	99.5	0.0	0.5	1.1	0.0	0.0	0.0	0.0	0.0
거주형태	아파트	95.1	2.7	2.2	1.2	1.3	33.3	66.7	0.0	0.0
	단독/다세대 등	99.4	0.6	0.0	1.1	0.0	0.0	0.0	0.0	0.0
주택유형	자가	96.8	1.8	1.4	1.2	0.5	0.0	100.0	0.0	0.0
	전월세/기타	97.2	1.7	1.1	1.2	1.1	50.0	50.0	0.0	0.0
노인 가구원	있음	93.8	3.7	2.5	1.3	1.9	33.3	66.7	0.0	0.0
	없음	99.2	0.4	0.4	1.1	0.0	0.0	0.0	0.0	0.0
장애인	있음	95.2	4.8	0.0	1.3	2.4	100.0	0.0	0.0	0.0
	없음	97.2	1.4	1.4	1.2	0.6	0.0	100.0	0.0	0.0
아동	있음	100.0	0.0	0.0	1.1	0.0	0.0	0.0	0.0	0.0
	없음	95.9	2.4	1.7	1.2	1.0	33.3	66.7	0.0	0.0
맞벌이	맞벌이	98.7	0.0	1.3	1.1	0.0	0.0	0.0	0.0	0.0
	외벌이/기타	96.6	2.2	1.2	1.2	0.9	33.3	66.7	0.0	0.0
경제상황	어려움	95.0	2.9	2.1	1.2	2.1	33.3	66.7	0.0	0.0
	보통	97.6	1.4	1.0	1.2	0.0	0.0	0.0	0.0	0.0
	여유로움	100.0	0.0	0.0	1.1	0.0	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100.0	0.0	0.0	1.1	0.0	0.0	0.0	0.0	0.0
	중	98.9	0.4	0.7	1.1	0.0	0.0	0.0	0.0	0.0
	하	91.2	5.9	2.9	1.3	2.9	33.3	66.7	0.0	0.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95.0	2.0	3.0	1.3	3.0	33.3	66.7	0.0	0.0
	25%~75%	97.0	2.5	0.5	1.2	0.0	0.0	0.0	0.0	0.0
	75%초과	99.0	0.0	1.0	1.1	0.0	0.0	0.0	0.0	0.0

- 약물 복용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99.3%가 이용의향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5-5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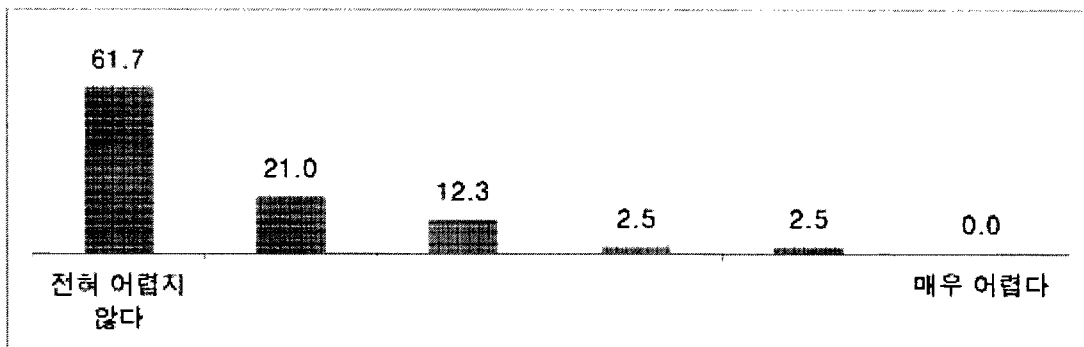
[그림 5-59]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약물 복용(%)



㉔ 고용 및 교육 영역

i 교육

[그림 5-60] 어려움 정도 - 학교생활(%)



□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따돌림, 등교 거부, 생활규정 위반, 학업의지 부족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60] 및 <표 5-54>와 같음.

○ 초·중·고 취학 가구원(해당 연령)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N=81), 지난 1년 중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61.7%,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21.0%로 1점과 2점을 합한 응답비율은 82.7%에 달하였음. 반면,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는 2.5%였고, 매우 어렵다고 답한 경우는 전혀 없었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6점이었음.
-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가구특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다만, 어렵다고 응답한 2사례 모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음.

<표 5-54> 학교생활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N=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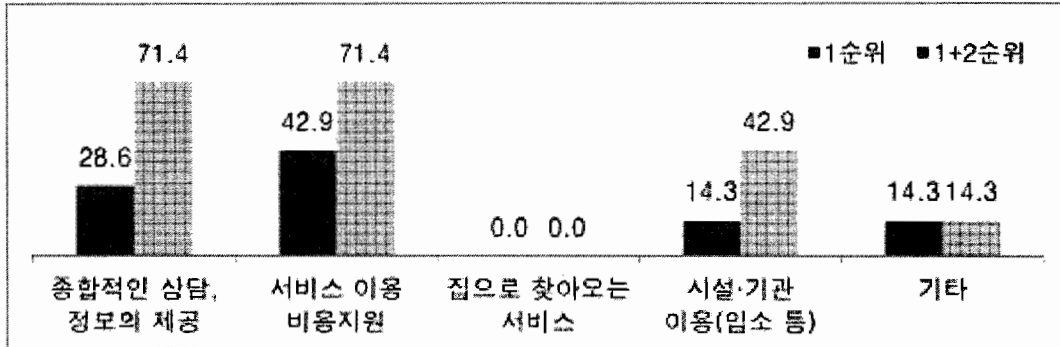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82.7	14.8	2.5	1.6	8.6	28.6	42.9	0.0	14.3	14.3
가구규모	1인 가구	0.0	0.0	0.0	0.0	0.0	0.0	0.0	0.0	0.0
	2인 가구	100.0	0.0	0.0	1.0	0.0	0.0	0.0	0.0	0.0
	3인 이상	82.3	15.2	2.5	1.6	8.9	28.6	42.9	0.0	14.3
거주형태	아파트	82.5	15.8	1.8	1.5	8.8	20.0	60.0	0.0	20.0
	단독/다세대 등	83.3	12.5	4.2	1.8	8.3	50.0	0.0	0.0	50.0
주택유형	자가	85.4	14.6	0.0	1.5	4.9	50.0	0.0	0.0	50.0
	전월세/기타	80.0	15.0	5.0	1.8	12.5	20.0	60.0	0.0	20.0
노인	있음	100.0	0.0	0.0	1.2	0.0	0.0	0.0	0.0	0.0
가구원	없음	81.6	15.8	2.6	1.7	9.2	28.6	42.9	0.0	14.3
장애인	있음	100.0	0.0	0.0	1.3	0.0	0.0	0.0	0.0	0.0
	없음	82.3	15.2	2.5	1.6	8.9	28.6	42.9	0.0	14.3
아동	있음	82.1	15.4	2.6	1.6	9.0	28.6	42.9	0.0	14.3
	없음	100.0	0.0	0.0	1.7	0.0	0.0	0.0	0.0	0.0
맞벌이	맞벌이	76.0	24.0	0.0	1.7	4.0	0.0	0.0	0.0	100.0
	외벌이/기타	85.7	10.7	3.6	1.6	10.7	33.3	50.0	0.0	16.7
경제상황	어려움	68.2	22.7	9.1	2.0	22.7	20.0	40.0	0.0	20.0
	보통	87.2	12.8	0.0	1.5	4.3	50.0	50.0	0.0	0.0
	여유로움	91.7	8.3	0.0	1.3	0.0	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88.9	11.1	0.0	1.3	0.0	0.0	0.0	0.0	0.0
	중	84.7	15.3	0.0	1.6	6.8	50.0	50.0	0.0	0.0
	하	69.2	15.4	15.4	2.1	23.1	0.0	33.3	0.0	33.3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100.0	0.0	0.0	1.3	0.0	0.0	0.0	0.0	0.0
	25%~75%	81.4	14.0	4.7	1.7	16.3	28.6	42.9	0.0	14.3
	75%초과	82.9	17.1	0.0	1.5	0.0	0.0	0.0	0.0	0.0

□ 그러나, 본 지역사회 주민조사의 응답자가 성인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로서, 학령기 학생들이 직접 응답한 결과가 아님을 유념하여야 함. 학교생활이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부모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임.

- 한편,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8.6%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91.4%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월세 거주, 경제적 상황 어려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낮은 가처분 소득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학교생활에 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7)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42.9%), 종합적인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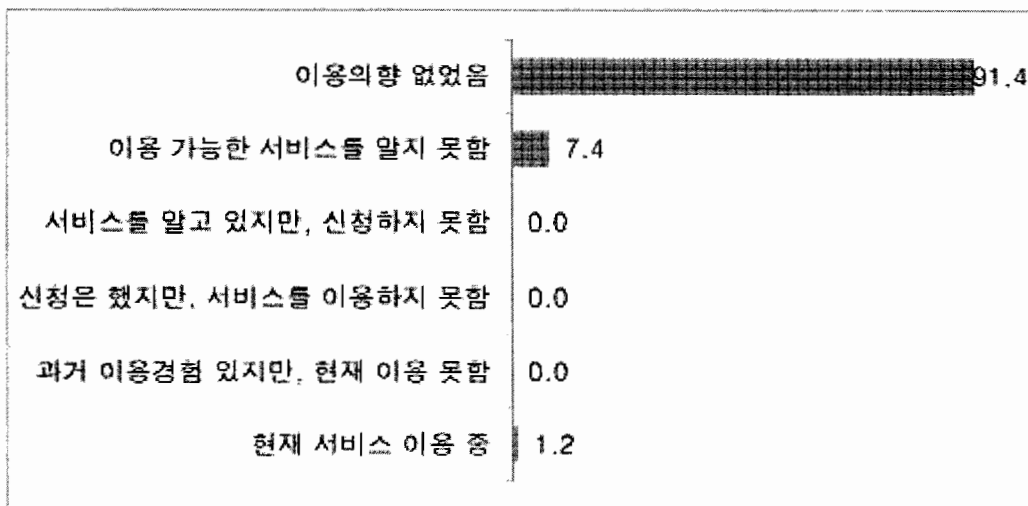
정보의 제공(28.6%), 시설·기관 이용(14.3%)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음.<그림 5-61> 참조)

[그림 5-61]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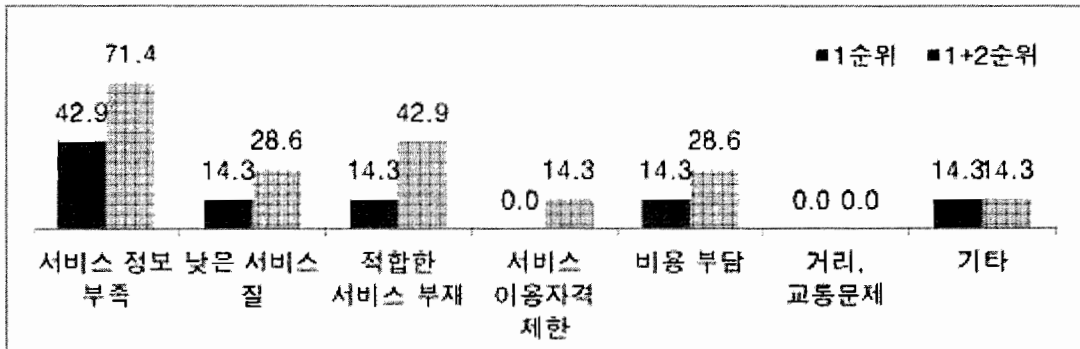


-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서는 91.4%가 이용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가 7.4%, 현재 서비스 이용 중은 1.2%로 나타났음.<그림 5-62> 참조)
 - 이 문항과 관련하여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7) 주된 불편사항으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이 4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비용 부담 등이 각각 14.3%로 조사됨.([그림 5-6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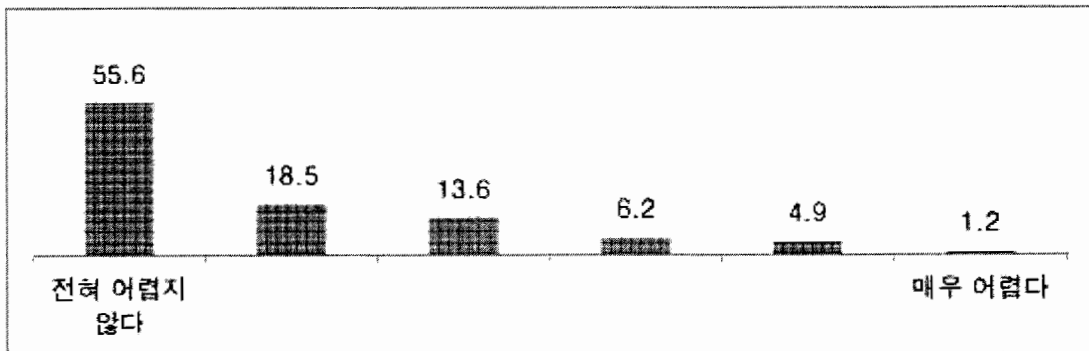
[그림 5-62]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학교생활(%)



[그림 5-63]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학교생활(%)



[그림 5-64] 어려움 정도 - 학업유지(%)



□ 학업 유지의 어려움은 특수교육 시설의 부족이나 학업과 관련된 비용부족의 어려움에 관한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64] 및 <표 5-55>와 같음.

○ 초·중·고 취학 가구원(해당 연령)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N=81), 학업유지의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서는 55.6%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어렵다는 응답은 18.5%로 1점과 2점을 합한 응답비율은 74.1%였음. 반면,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는 6.2%였고, 매우 어렵다고 답한 경우는 1.2%에 불과하였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9점이었음.

□ 학업유지의 어려움에 대한 가구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응답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학업유지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실제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8%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85.2%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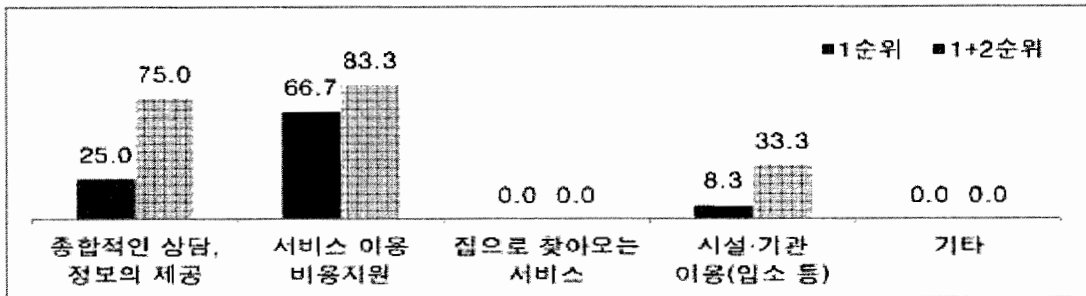
-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인 가구, 맞벌이 가구, 장애인 가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부모가 직접 학습지원을 하기 어려운 한부모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외부지원 필요성 인식이 높았고, 장애아동이나 부모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응답경향을 보였음.
 - 또한, 경제적 상황 어려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낮은 가처분 소득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학업유지를 위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12)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로는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꼽은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고, 종합적인 상담, 정보제공(25.0%), 시설·기관 이용(8.3%)의 순서였음.([그림 5-65] 참조)
- 학업유지의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서는 86.4%가 이용의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가운데,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응답은 2.5%에 불과하였음.([그림 5-66] 참조)
 - 학업유지 어려움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11), 주된 불편사항으로는 낮은 서비스 질과 서비스 이용자적 제한을 지적한 경우가 각각 27.3%로 나타났고, 정보부족과 비용부담이 18.2%로 나타남(1순위 기준).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로는 서비스 정보 부족과 서비스 이용자적 제한이 각각 54.5%로 높았음.([그림 5-67] 참조)

<표 5-55> 학업유지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N=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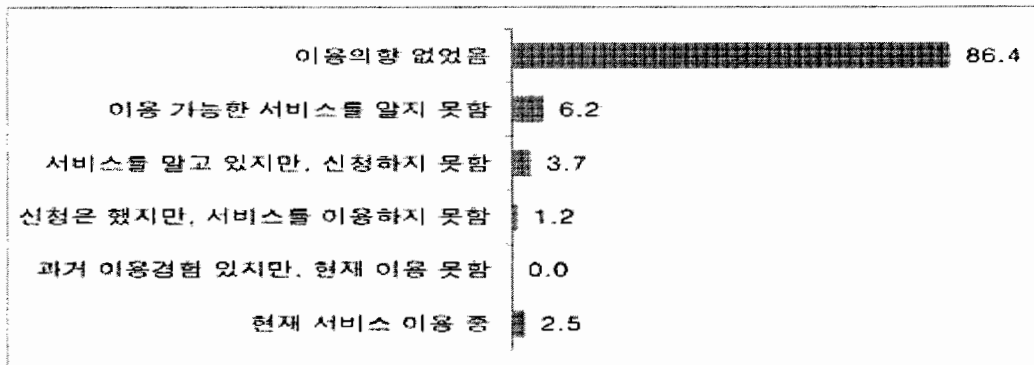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 지원	제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74.1	19.8	6.2	1.9	14.8	25.0	66.7	0.0	8.3	0.0
가구규모	1인 가구	0.0	0.0	0.0	0.0	0.0	0.0	0.0	0.0	0.0
	2인 가구	50.0	50.0	0.0	2.0	50.0	0.0	100.0	0.0	0.0
	3인 이상	74.7	19.0	6.3	1.9	13.9	27.3	63.6	0.0	9.1
거주형태	아파트	75.4	19.3	5.3	1.8	12.3	14.3	85.7	0.0	0.0
	단독/다세대 등	70.8	20.8	8.3	2.1	20.8	40.0	40.0	0.0	20.0
주택유형	자가	78.0	14.6	7.3	1.8	12.2	20.0	80.0	0.0	0.0
	전월세/기타	60.0	33.3	6.7	2.1	23.3	28.6	57.1	0.0	14.3
노인 가구원	있음	100.0	0.0	0.0	1.2	0.0	0.0	0.0	0.0	0.0
	없음	72.4	21.1	6.6	1.9	15.8	25.0	66.7	0.0	8.3
장애인	있음	66.7	33.3	0.0	2.0	33.3	0.0	0.0	0.0	100.0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아동	없음	74.4	19.2	6.4	1.9	14.1	27.3	72.7	0.0	0.0	0.0
	있음	73.1	20.5	6.4	1.9	15.4	25.0	66.7	0.0	8.3	0.0
	없음	100.0	0.0	0.0	1.7	66.7	0.0	100.0	0.0	0.0	0.0
맞벌이	맞벌이	76.0	20.0	4.0	1.8	40.0	30.0	60.0	0.0	10.0	0.0
	외벌이/기타	73.2	19.6	7.1	2.0	0.0	0.0	0.0	0.0	0.0	0.0
경제상황	어려움	63.6	27.3	9.1	2.2	31.8	28.6	71.4	0.0	0.0	0.0
	보통	76.6	17.0	6.4	1.9	10.6	20.0	60.0	0.0	20.0	0.0
	여유로움	83.3	16.7	0.0	1.5	0.0	0.0	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100.0	0.0	0.0	1.1	0.0	0.0	0.0	0.0	0.0	0.0
	중	74.6	20.3	5.1	1.9	11.9	28.6	57.1	0.0	14.3	0.0
	하	53.8	30.8	15.4	2.5	38.5	20.0	80.0	0.0	0.0	0.0
가치분 가구소득	25%미만	66.7	33.3	0.0	1.7	33.3	0.0	100.0	0.0	0.0	0.0
	25%~75%	72.1	18.6	9.3	2.1	20.9	22.2	66.7	0.0	11.1	0.0
	75%초과	77.1	20.0	2.9	1.7	5.7	50.0	5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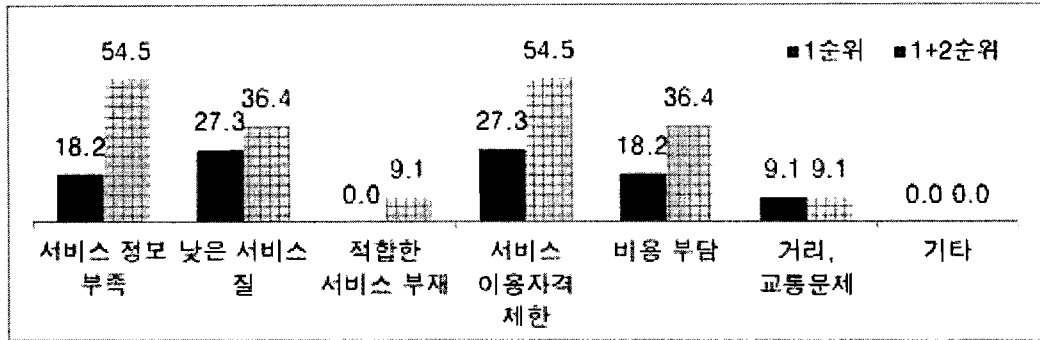
[그림 5-65]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학업유지(%)



[그림 5-66]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학업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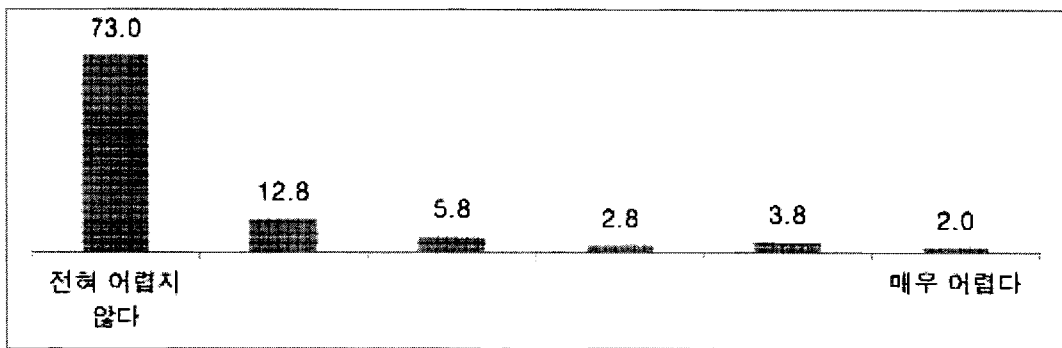


[그림 5-67]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학업유지(%)



-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은 평생교육 기회 부족, 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능력 부족 등에 관한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68] 및 <표 5-56>과 같음.
- 본 조사에 참여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에 대한 어려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10가구 중 7가구 이상(73.0%)에서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어렵다는 응답은 12.8%로 1점과 2점을 합한 응답비율은 85.8%였음. 반면,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는 5점과 6점 응답을 합하여 5.8% 수준에 불과하였음.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6점이었고, 가구특성에 따른 평균점수의 차이도 크지 않았음.

[그림 5-68] 어려움 정도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



-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과 관련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서는 4.5%만이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그러나, 가구특성에 따른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었음. 앞의 분석에서는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응답자들이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으나, 평생교육 분야는 정 반대의 경향을 보였음.
- 즉, 아파트 거주,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높으며, 고소득 응답

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외부지원의 필요성 인식 비율이 훨씬 더 높았음.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도 외부지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평생교육을 통한 성인기 이후의 자기계발은 기초생활이나 돌봄 등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넘어선 것으로, 비교적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주민들의 욕구 수준이 더 높았다고 해석됨.

<표 5-56>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전체가구)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85.8	8.5	5.8	1.6	4.5	55.6	11.1	0.0	5.6	27.8
가구규모	1인 가구	84.1	9.8	6.1	1.5	3.7	66.7	0.0	0.0	0.0	33.3
	2인 가구	85.8	7.5	6.7	1.7	4.2	60.0	0.0	0.0	20.0	20.0
	3인 이상	86.4	8.6	5.1	1.5	5.1	50.0	20.0	0.0	0.0	30.0
거주형태	아파트	82.1	9.4	8.5	1.7	6.3	64.3	14.3	0.0	0.0	21.4
	단독/다세대 등	90.4	7.3	2.3	1.4	2.3	25.0	0.0	0.0	25.0	50.0
주택유형	자가	87.3	6.8	5.9	1.5	5.0	54.5	9.1	0.0	9.1	27.3
	전월세/기타	83.8	10.6	5.6	1.6	3.9	57.1	14.3	0.0	0.0	28.6
노인 가구원	있음	80.9	9.9	9.3	1.7	4.9	75.0	12.5	0.0	12.5	0.0
	없음	89.1	7.6	3.4	1.5	4.2	40.0	10.0	0.0	0.0	50.0
장애인	있음	76.2	11.9	11.9	1.9	9.5	100.0	0.0	0.0	0.0	0.0
	없음	86.9	8.1	5.0	1.5	3.9	42.9	14.3	0.0	7.1	35.7
아동	있음	86.1	9.3	4.6	1.5	3.7	0.0	25.0	0.0	0.0	75.0
	없음	85.6	8.2	6.2	1.6	4.8	71.4	7.1	0.0	7.1	14.3
맞벌이	맞벌이	85.9	10.3	3.8	1.6	5.1	100.0	0.0	0.0	0.0	0.0
	외벌이/기타	85.7	8.1	6.2	1.6	4.3	42.9	14.3	0.0	7.1	35.7
경제상황	어려움	83.6	8.6	7.9	1.6	3.6	20.0	40.0	0.0	0.0	40.0
	보통	87.1	8.1	4.8	1.5	4.3	66.7	0.0	0.0	11.1	22.2
	여유로움	86.3	9.8	3.9	1.6	7.8	75.0	0.0	0.0	0.0	25.0
사회경제 지위	상	77.8	14.8	7.4	1.7	11.1	66.7	0.0	0.0	0.0	33.3
	중	91.1	5.9	3.0	1.4	3.7	50.0	20.0	0.0	10.0	20.0
	하	73.5	13.7	12.7	1.9	4.9	60.0	0.0	0.0	0.0	40.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84.0	10.0	6.0	1.6	3.0	66.7	0.0	0.0	33.3	0.0
	25%~75%	88.6	6.5	5.0	1.6	4.5	55.6	22.2	0.0	0.0	22.2
	75%초과	81.8	11.1	7.1	1.6	6.1	50.0	0.0	0.0	0.0	50.0

- 평생교육 관련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18) 구체적인 지원 및 서비스로는 종합적인 상담/정보의 제공을 꼽은 경우가 55.6%로 많았음(1순위 기준). 이러한 결과는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 욕구 계층이 경제적 형편이 양호한 주민들이므로 이용료 지원보다는 정보제공에 더 많은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임.([그림 5-69] 참조)